Weekly 공감

2009 09.02
No.27(통권 128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중점기획 나로호, 그래도 우리는 우주로 간다

신종플루 이겨내고 있다

신우창 박사의 막걸리 예찬



그린스타트!
녹색은 생활이다

4대강 살리기
알뜰하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국가 예산 2~3%로 홍수와 가뭄을 근원적으로 예방합니다
· 최근 4년간 수해복구와 예방비로 16조원이 들었습니다.
· 이제 사후복구에서 예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40년간 방치했던 수자원과 생태계를 되살립니다
· 오염원을 차단하고 첨단보를 설치해 깨끗한 강물로 복원합니다.
· 자전거 도로, 둔치공원 등 전국의 강변과 지역문화가 살아납니다.

4대강 살리기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 34만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옵니다.

내년 SOC예산은 적정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올해 SOC예산이 한시적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경제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발전 등에 효과가 큰 사업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미리 대비!
녹색성장 일류 국가!

대한민국정부

온실가스가 나라를 위협한다 '태풍 모라꼿' 타산지석 삼자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지난 8월 8일 태풍 '모라꼿(Morakot)'이 대만을 강타했다. 항구도시 가오슝 일대는 시속 1백8킬로미터의 기록적인 강풍에다 그곳의 1년 강우량에 달하는 2천5백밀리미터의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져 온천휴양지 호텔이 무너지고, 산사태로 거대한 산 한쪽이 쓸려나갔다. 특히 3백 가구 1천3백명이 사는 샤오린 마을을 초토화해 1백36명 사망에 4백명 실종이라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천재(天災)는 인재(人災)라고 여기는 것이 고금의 상식이다. 초대형 재해를 예보하지 못한 데다 늑장 대응한 책임을 지고 내각 사무총장 등이 사임했다. 태풍의 진행 속도가 아주 느려 그 위력을 제대로 짐작하지 못한 탓이었다.

태풍은 바다에서 증발하는 수증기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뒤늦게 밝혀진 바로는 당시 인근 필리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섭씨 2도 올라갔다고 한다. 이 탓에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생겼고, 그것을 머금은 태풍이 회오리를 치면서 폭우를 쏟아냈다. 슈퍼 태풍으로 50년 만에 최악의 재해를 입은 대만은 마침내 총통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국적(國賊)'으로 간주해 대처하겠다고 공언했다.

'재앙은 하나로만 오지 않는다(禍不單行)'는 경구(警句)를 실증하듯, 태풍은 바람 난리인 풍재(風災)에 물난리인 수재(水災)가 겹치는 천재다. 천재가 예견되면 사람들은 우선 말로써 슬슬 달래게 마련이다.

19세기 말 이래 한반도에 수재와 풍재, 그리고 병화(兵火)인 화재(火災)를 더한 삼재가 닥칠 것을 두려워했던 팔도 사람들이, 예언서 〈정감록〉이 십승지(十勝地)의 첫째로 꼽았던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동으로 몰려들었다.

고려 때 몽골의 침입이나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큰 피해가 없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한말에 이어 일제강점기에 특히 평안도 사람들이 대거 이주했다. 삼재가 들지 않은 '영험'이 '경험'으로 증명됐다며 6·25전쟁 때도 타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1980년대 초 통계가 말해주듯, 풍기 주민 80퍼센트가 1백년 안짝에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주술적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하다. 전통시대의 삼재는 국지적이어서 나라 땅에서 피할 곳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 곳곳이 산업화와 근대화에 매달리자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가 데워졌다. 이젠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만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최우선 대책이다.

그런데 대책 실현에 필수인 국민적 경각심은 함량 미달이다. 다른 선진국도 그렇다지만 온실가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 위험성을 말함은 '구름 잡는 허황된 소리'쯤으로 받아들여지기 일쑤다.

가해에 일단의 책임이 있고, 피해가 무작위로 예상됨에도 시민들이 무감각하니 이런 딜레마가 없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현장이고 생활의 절대 기반이다. 여기서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이해와 실감이 부족하니 어찌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것인가.

최근 휴가차 모국을 찾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두루 꿰뚫고 있는 분이다. 정부 요인들 앞에서 반 총장이 신신당부한 말은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보도보다 사태가 한층 심각함을 유념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모라꼿의 위력은 타산지석이고, 준비를 당부하는 반 총장은 선지식(善知識)이다. 더 위력적인 경보등도 우리가 빤히 보는 앞에서 켜졌다. 모라꼿 여파로 수도권 동두천에 8월 11일 즈음 3백58밀리미터의 물 폭탄이 떨어졌던 것이다. 우리에게도 온실가스를 나라 존망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공적으로 삼으라는 하늘의 재촉이 아니겠는가. 녹색성장과 녹색생활이 필요한 이유다. G

이 주의 공감 Weekly_2009.09.02_No.27(통권 128호)



8월 25일 인천 진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정충기 교무부장과 함께 태양열로 에너지를 만드는 기구를 살펴보고 있다.

기획특집

그린스타트! 녹색은 생활이다

나날이 병들어가는 지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생활습관을 바꾸면 지구가 바뀝니다.
생활습관을 바꾸면 지구가 살아납니다.
지구를 구하는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습관, 바로 녹색생활입니다.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곧 나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길입니다.
지금 시작합시다, 녹색생활 그린스타트!


38


06

Weekly 공감
발행일 2009.9.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 〈Weekly 공감〉 26호(8월 26일자) '아시아인 최초 메이저 우승 양용은 선수' 기사와 관련해 독자들의 축하와 격려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PGA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국가적 경사요, 국민에게 큰 자부심과 용기를 주는 쾌거였습니다." _ ikparkkr

"제가 양용은 선수를 진정한 세계 챔피언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이룬 쾌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변변한 스폰서 하나 없이 동양인 최초로 PGA 메이저대회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난 기사가 생각납니다. 유럽투어에 양용은 선수가 참가했는데 그때 주최 측에서 양용은 선수를 잘 몰라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대회에 참가했는지 물었고, 이에 양용은 선수는 그냥 여행 왔다가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답니다. 양용은 선수는 그 대회에서 우승한 걸로 기억나고요. 양용은 선수, 당신은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의 스포츠 스타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_ as9988

●● 〈Weekly 공감〉 25호(8월 19일자) '기획특집-대한민국 통합號 중도실용으로 순항' 기사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혜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따뜻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실직자, 휴·폐업자들을 위해 2백8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는 것을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적으나마 구조금으로 자립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_ 두루누리

"대통령께서 주창하시는 '중도실용주의', 정말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좌파니 우파니 나뉘어서 허구한 날 말싸움이나 하며 국력을 낭비하는 동안 국가경쟁력은 점점 더 추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보수도 진보도 모두 다 아우르는 그런 국정운영으로 국민이 웃으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_ hiselim0517

"중도실용주의는 냉전과 이념대결이 끝난 이후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가 및 집단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몰락의 비관과 승자의 자만심을 모두 털어버리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화목과 발전적 균형을 보장할 수 있게 하며, 국가와 시장의 기능을 조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남북문제, 민족문제도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_ 최동성

Weekly 공감(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녹색신호등이 너무 일찍 깜빡거려 불안하셨죠?
10월부터는 녹색점멸시점이 늦춰져서
여유 있게 건널 수 있어요.

똑똑똑…

국토해양부 '청소년 습지연구 공모전'

중고생 대상 9월 30일까지 접수

국토해양부는 청소년들에게 습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습지보전 활동 참여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청소년 습지연구 공모전'을 개최한다. 2007년부터 시작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현재 국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같은 학교 소속 학생 4명 이내와 지도교사 1명으로 한 팀을 구성해 참가하면 된다.

▶**연구 주제** 습지의 특성, 생물다양성 및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 등 우리나라 습지와 관련한 주제이면 모두 가능. 참가자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독특한 환경특성이나 자료에 기초한 독창적인 주제도 가능

▶**공모 일정** 참가 접수(9월 1~30일), 보고서 접수(9월 14일~10월 23일), 예선(10월 27~31일) 및 본선(11월 14일). 시상식(2010년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시상** 1위(1팀) 국토해양부 장관상, 2위(1팀)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상, 3위(1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상, 장려상(2팀). 1위와 2위 팀에게는 해외 습지 견학 기회 부여, 3위와 4위에게는 부상 수여

※ 공모 일정, 공모 요강, 참가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em.or.kr) 참조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공감 퍼즐

1			2	■	3
■	■	■	4	5	
6	■	■	■	7	
8	9	■	■		■
■	10				■
■		■	■	■	■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9월 9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과 녹색생활실천 머그컵을 드립니다.

〈Weekly 공감〉 25호(8월 19일자) '공감 퍼즐' 정답과 당첨자

가로 2 광복절 3 합리화 5 문중 7 교과서 9 민원실 10 중산층
세로 1 통합 2 광화문 4 애교 6 중도실용 8 서민층

당첨자
강성주(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변희종(강원 춘천시 온의동)
임동진(인천 남동구 만수동)
장은령(울산 남구 신정동)
한승연(전남 화순군 화순읍)

가 로

1.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한 생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등으로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꼭 필요한 이것의 실천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죠.
4. 할 수 있다는 느낌. 자신을 믿는 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
7. 세로로 줄을 지어 나란히 선 대형. 횡대의 반대.
8.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자료. 출처, 원전.
10. 신종플루 치료제.

세 로

2. 인쇄 등을 위해 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글자. 또는 찍어낸 글자.
3. 다른 사람의 의견, 주장, 감정 등에 대해 나도 그렇다고 느끼는 부분. "이 정책에 대한 국민의 OOO 형성이 필요하다."
5. 8월 15일 첫 사망자 발생 이후 이것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확진 환자가 3천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냈는데요.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엔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화장지는 바로 '버리고' '손 씻고' 체온이 섭씨 37.8도 이상인 경우엔 '신고하기'입니다.
6. 비금속 원소의 한 가지. C. "인류는 OO 줄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9. 출발.

신종플루 이겨내고 있다

백신 연내 1천만명분 예방접종

8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신종인플루엔자A(H1N1 ·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신종플루 방역대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연내에 신종플루 백신 1천만 도스를 확보해 의료진과 임산부, 학생, 군인 등에 대한 접종에 나서기로 했다.


동아DB

신종플루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병원 의료진. 병원에서는 남용을 우려해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엄격히 처방하고 있다.

신종플루 감염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신종플루 백신 1천만 도스(dose · 1회 접종분)를 확보, 최대 1천만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8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신종플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내 정부가 확보할 1천만 도스 가운데 7백만 도스는 녹십자가 생산하고, 나머지 3백만 도스는 외국 제조사(글락소스미스클라인)로부터 수입하게 된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순쯤 접종을 시작하게 되며 백신 임상허가 결과에 따라 1회 접종 또는 2회 접종이 결정되므로 최대 1천만명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확보한 백신은 의료·방역요원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할 계획이며 임산부와 영·유아, 질병취약계층, 학생과 군인 등 순으로 추이를 보아 결정하게 된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내년 2월까지 녹십자가 생산하게 될 5백만 도스를 추가 확보해 신종플루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규모, 즉 전 인구의 27퍼센트인 1천3백66만명에 대해 접종할 계획이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향후 외국 제약업체의 공급이 순탄치 않을 경우 국내 제약사의 추가생산에 의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신 원료에 항원 보강제를 첨가하면 면역 유발능력을 2~4배 늘릴 수 있으며, 이 방식을 통해 더 많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신종플루 사망률 0.08%… 독감보다 치사율 낮아

우리나라에서는 8월 28일에만 2백57명의 신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했으며 그동안 발생한 신종플루 환자 가운데 1천6백40명이 치료 또는 격리관찰을 받고 있고 7명이 입원 중이다. 신종플루 신규 환자 하루 발생 규모는 5월 1.3명, 6월 5.9명, 7월 39.6명, 8월 93.4명이다.

사실 신종플루의 치사율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국내의 경우 신종플루 사망자는 전체 감염자 3천5백여 명의 0.08퍼센트 정도인 3명이다. 일반적인 독감 사망률이 0.2퍼센트인 점을 감안하면 '독감보다 못한 신종플루'라는 판단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다. 다만 대유행 임박 이전에 백신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백신 확보에 애를 먹는 것과 달리 항바이러스제 확보는 어렵지 않다. 일부 언론이 백신과 항바이러스제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보도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공포감을 키우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항바이러스제는 현재 타미플루와 리렌자 두 종류가 있다. 다만 이들 약을 미리 먹는다고 해서 신종플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초 정부는 연말까지 항바이러스제 5백31만명분을 확보한


동아DB

신종플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백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녹십자의 전남 화순 백신공장. 직원들이 정제된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유리병에 담고 있다.

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종플루 공포가 확산되자 비축 분량을 늘리기로 했다. 8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신종플루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항바이러스제를 전 국민의 20퍼센트 수준인 1천31만명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항바이러스제, 즉 신종플루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달리지 않는다. 병원마다 타미플루를 처방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모두 처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WHO는 타미플루를 남용하면 내성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밖에도 부작용이 예상돼 엄격한 처방 기준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그 기준에 맞춰 중증환자나 임산부, 고령 노인이나 유아 등 고위험군을 위주로 약을 투여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타미플루를 남용하면 내성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밖에도 부작용이 예상돼 엄격한 처방 기준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그 기준에 맞춰 중증환자나 임산부, 고령 노인이나 유아 등 고위험군 위주로 약을 투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에 52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두 차례에 걸쳐 배포했다. 현재 인력이 달려 얼마나 항바이러스제가 처방됐고 소진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설명이다. 다만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거점병원 몇 군데를 확인해보니 하루에 1백~1백50명 정도가 약을 처방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신종플루 공포가 확산되면서 타미플루를 처방해달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약이 필요한 사람은 10퍼센트도 안 된다. 타미플루 비급여 처방전을 남발하는 의사도 문제다. 현재 정부가 배포한 물량은 모든 처방 명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신종플루가 유행하기 전에 공급된 약들은 정부가 파악하지 않는다. 이런 약들을 노려 비급여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다.

앞으로 항바이러스제 부족 사태는 없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이미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고, 공급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타미플루 제조사인 한국로슈의 울스 플루키거 사장은 국내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1년에 타미플루를 4억 팩씩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타미플루가 모자라 공급하지 못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새로 생산된 제품을 원한다면 한국에 공급되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지만 이미 만들어놓은 제품을 원하면 빨리 한국에 공급할 수 있다"고도 했다. 미리 만들어놓은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3년까지다. G

글 · 김상훈(동아일보 교육복지부 기자)

Q&A 신종플루

건강한 사람은 통상적인 치료로 회복

신종플루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무지(無知)에서 오는 공포는 더 무섭다. 정확히 알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나 자신과 가족, 나아가 이웃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다. 신종플루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보자.


동아DB

마스크를 쓰고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종플루 예방법이다.

Q. 신종플루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신종플루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배출되는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 침방울들이 1, 2미터까지 날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묻거나 호흡기, 눈으로 들어가 전염됩니다.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묻은 물체를 만져서 전염되기도 합니다.

Q. 외부로 배출된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얼마 동안 생존하나요.

딱딱하며 구멍이 없는 고체 표면에서는 72시간까지 살아남지만 감염을 일으킬 정도의 바이러스 양은 24시간까지만 생존합니다. 옷이나 이불, 손수건, 책자 등 부드러운 물체의 표면에서는 12시간까지 생존하며 감염을 일으킬 정도로는 15분간만 생존 가능합니다. 손에 묻은 바이러스 생존 시간은 5분 이하입니다. 물과 비누로 손을 씻으면 즉시 바이러스가 파괴되며 알코올 성분의 손 세척제를 사용해도 30초 내에 바이러스가 파괴됩니다. 신종플루는 가정용 소독제(염소계 소독제 등)로도 충분히 소독이 됩니다.

Q. 신종플루 잠복기와 전파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잠복기란 병원체가 몸에 들어온 시점부터 처음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신종플루 잠복기는 대체로 2, 3일이며 최장 7일입니다. 신종플루는 증상이 나타난 날로부터 보통 5일째까지 전파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길게는 7일인데 소아·청소년의 경우 전파 기간이 좀 더 깁니다.

Q. 신종플루의 증상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계절독감 증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발열(섭씨 37.8도 이상)이 있고 기침을 하거나 콧물이 나며 목이 아픈 것과 같

은 호흡기 증상이 주로 발생합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오심, 무력감, 식욕부진, 설사와 구토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Q.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 같다면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뚜렷한 인플루엔자 증상(섭씨 37.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이 없는 한 신종플루 검사는 권장되지 않으며, 증상이 가볍다면 대증적 치료를 통해 쉽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렴 등 호흡기질환으로 인해 중증으로 진전된 경우 우선적으로 신종플루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Q.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받을 수 있나요.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는 모든 사람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중증환자,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지 않으면 심각한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 투약됩니다. 특히 건강한 성인이라면 굳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집에서 쉬면서 진통제를 먹고,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과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진단과 검사 결과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항바이러스제 우선 투약 대상

- 65세 이상 노인
- 만성질환자
  - 폐질환
  - 만성 심혈관질환
  - 당뇨
  - 신장질환
  - 만성 간질환
  - 악성종양
  - 면역저하자
- 임산부
- 59개월 이하 소아

Q.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맞고 싶은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백신은 품귀현상을 빚고 있으며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도 12개국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 국가지만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매우 적어 현재 생산능력을 갖춘 유수의 제약사들이 신종플루 백신 개발과 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절독감 백신은 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종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소아나 청소년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상이 가볍다면 항바이러스제 복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엄마나 아이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유 수유는 권장됩니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들에게 아스피린을 진통제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탈수를 막기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신종플루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하루는 더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Q. 젊은이나 임산부가 더 위험한가요.

미국이나 멕시코의 경우 계절독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환자와 사망자가 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젊은층에게 신종플루가 더 위험해서라기보다는 젊은 연령층이 대인 접촉이나 해외여행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의 경우 과거 계절독감이나 다른 형의 인플루엔자 대유행 당시 합병증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산모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체온 상승으로 기형, 조산과 같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신종플루 의심환자와 '근접 접촉'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신종플루 근접 접촉자란 환자와 가까이 접촉해 감염 가능성이 높아 예방관리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보통 1, 2미터 이내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종플루 환자와 이렇게 가까이 접촉했다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항바이러스제 복용은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내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해외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회복될 때까지 해외여행을 미뤄야 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제회의는 가능하면 참석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국제회의에 참석해 회의 기간 중 몸이 좋지 않다면 호텔이나 집에서 쉬면서 회의 주최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신종플루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영국,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태국, 홍콩, 필리핀 등 11개국입니다. 하지만 유행 정도만 차이 날 뿐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국가를 방문하든 손을 씻고 기침에 주의하는 등 개인위생에 주의해야 합니다. 귀국 후 1주일 이내에는 열이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소아·청소년은 1주일간 열이 나는지 살핀 다음 등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 신종플루가 확산될 때 집에서는 어떻게 예방하나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집에 신종플루 환자가 있다면 환자와의 접촉을 가능하면 줄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신종플루 환자를 돌볼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질병관리본부 02-380-2605, cdc.go.kr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 주택 건설부지로 선정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촌. 국토해양부는 훼손된 수도권 그린벨트에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을 짓는다.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 도입

수도권 '비닐벨트' 풀어 32만 가구 공급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에 짓기로 돼 있는 보금자리 주택 32만 가구를 조기 공급, 시가의 절반 가격에 분양하거나 임대해 불안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켜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즉 '비닐벨트'와 '창고벨트' 지역을 해제함으로써 오히려 환경이 복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에 시세보다 최고 절반까지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 32만 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2018년까지 계획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보금자리 주택 32만 가구 공급을 2012년까지로 6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8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 방안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뿐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서민경기 부양대책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또 "보금자리 주택은 이미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소위 '창고벨트' '비닐벨트'에 짓는 것이므로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히 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내에 지어지는 보금자리 주택의 조기 공급 방안이 나온 것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이번 서민 주거확대 방안은 최근 전셋값과 집값 상승 추세로 볼 때 이대로 두면 2, 3년 뒤에는 집값이 예상보다 더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 시세 50~70%선 분양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 수도권 주택건설(인허가 기준)은 19만8천 가구에 그쳤다. 이는 전년 대비 35퍼센트 급감한 규모다. 올 들어서는 7월까지 6만1천 가구만 인허가를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퍼센트 감소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공급량 급감으로 2000년대 초 집값이 한 해에 최고 29퍼센트까지 급등한 바 있다.

이번 서민 주거확대 방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인 수도권



동아DB

그린벨트를 풀어 짓는 가구 수가 12만 가구에서 32만 가구로 20만 가구가 증가하면서 2012년까지 수도권에 총 60만 가구(분양 26만, 임대 34만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게 되어 서민주택 공급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9월에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 주택 시범단지의 분양가도 공개됐다. 서울 강남 세곡·우면지구는 3.3평방미터당 1천1백50만원으로 시세의 50퍼센트선이며 경기 고양 원흥지구는 8백50만원으로 시세의 70퍼센트선에 분양된다.

보금자리 주택은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주택과 공공임대, 장기전세 등 서민용 주택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날 발표된 서민 주거대책은 지난해 9월 19일 발표된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을 모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018년까지 수도권에 1백만 가구, 지방에 50만 가구를 건설한다는 1백50만 가구(분양 70만 가구, 임대 80만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2012년까지 앞당겨 지어지는 보금자리 주택 60만 가구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공급된 29만2천 가구의 2배 물량이다. 이는 분양과 임대 가리지 않고 가구 수만 놓고 볼 때 수도권 청약저축 가입자 1백7만명의 절반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다.

한편 이날 서민 주거확대 방안이 발표되자 지난해 보금자리 주택 계획 발표 당시 제기됐던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가 다시 제기되기도 했다. 환경단체들은 그린벨트 훼손이 시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민 주거대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 주택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소위 '비닐벨트' '창고벨트'만 해제 대상이다.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종전에 훼손된 곳을 살리는 경우도 많다. 훼손된 그린벨트만 풀기 때문에 녹색성장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는 모델하우스의 거품을 빼라고 특별히 주문했다"며 "주택 내장재에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 에너지 절감 주택처럼 관리비를 낮춰주는 실용적인 서민주택을 공급하라는 게 대통령의 방침이다. 공공이 앞장서서 간소하게 모델하우스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만 해제 대상"

국토해양부는 강남 세곡처럼 일부 인기지역에서 '반값 아파트'로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이 '로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7~10년으로 연장하고,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5년의 의무 거주기간도 부과했다. 국토해양부는 시세 차익이 클수록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늘이고, 전매제한 기간 내에 보금자리 주택을 매도할 경우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땅값,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제를 엄정하게 운용하며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9월 이후 보금자리 주택이 사전예약을 통해 실제로 분양되기 시작하면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미등기 전매나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민 주거확대 방안에서는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내고 기혼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2008년 기준 약 3백12만원)인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체 분양물량 중 20퍼센트가 특별공급된다. G

글·박경아 기자

보금자리 주택 60만 가구 공급 계획(2012년까지)

지역	택지	이전 대책(2008.9.19)	변경 대책(2009.8.27)
수도권	그린벨트	12만 가구	32만 가구
	신도시	20만 가구	20만 가구
	도심 내	8만 가구	8만 가구
지 방		20만 가구	20만 가구

세금 줄여 서민 살리고… 세원 살려 경제 살리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는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세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화두로 삼은 2009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8월 24일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사업소득세 납부 의무를 없애는 등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고소득 전문직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 밖에도 신성장동력 산업과 원천기술 분야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세제 개편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우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개편에 공을 들였다.

기획재정부는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섰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실패로 재산을 잃은 사업자가 내지 않은 세액에 대해 결손으로 처리돼도 국세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체납자로 분류돼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며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이 취소돼 즉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소형주택 월세 최대 40%까지 공제

이번 개편안은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연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백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등록이나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사라지게 돼 사업 재개, 취업 등



2009년 세제 개편안은 영세사업자에 대해 5백만원까지 결손처분액 납부를 면제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패자부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5년간 5백만원 이하 결손처분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4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세무서가 5백만원 이상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체납자료 통보 범위를 1천만원 이하 체납자로 축소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 지급액의 40퍼센트(연간 한도 3백만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9백30만명이며 전체 근로자의 70퍼센트 수준이다.

또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지난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불입액의 40퍼센트(연간한도 1백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세 그물'은 더욱 촘촘히 짜인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도록 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15개 전문직과 의사, 한의사 등 의료관련 4개 업종, 입시학원, 골프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상습, 고액 탈세의 경우 징벌이 획일화돼 있던 것을 액수와 상습 여부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기로 했다.



동아DB


동아DB

고소득 전문직과 골프장 등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 거래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이 의무화된다.

또 지금까지 급여 수준에 상관없이 연 50만원까지 일괄 공제했으나 내년부터는 총급여 1억원이 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폐지된다. 또 근로소득 공제율도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축소되고 총급여 8천만~1억원인 경우도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줄어든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10퍼센트 세액공제를 하던 제도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는 의무화됐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세액공제는 9천억원에 달했다.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소득 세액공제 폐지

임대사업자의 과표 양성화 작업도 벌여 상가임대인은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국세청이 임대료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임대료 과소신고를 가려내게 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도 총액 3억원 이상에 대해 2011년부터 과세한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도 내년부터 강화된다. 중소기업과 과표 1백억원 이하 기업은 당초대로 최저한세율(8→7퍼센트, 11→10퍼센트)이 인하되지만 과표 1백억원 초과기업은 2008년 수준으로 환원(14→13퍼센트)되고 1천억원 초과 기업은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15퍼센트)된다.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기업에 대한 단순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된다.

이 밖에 개인투자가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나 평가손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공모펀드와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 안택순 조세정책과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향후 3년간 10조5천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증세를 부담하는 비중은 80~90퍼센트 수준으로, 추가 세원은 자금 사정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첫 외국인 고위 공무원 기상청 크로퍼드 단장

"2012년까지 26개 레이더망 구축"



동아DB

케니스 크로퍼드 기상청 기상선진화추진단장은 "미국에서의 기상예보 경험을 살려 한국 날씨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나는 변화를 즐기는 사람이다. 기상청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국내 첫 외국인 고위공무원으로 임명된 케니스 크로퍼드(66) 기상선진화추진단장(1급)이 8월 21일 기상청 강당에서 첫 기자회견을 갖고 기상청의 업그레이드를 다짐했다. 30년간 미국 기상청에서 예보 업무를 맡았고 오클라호마대 기상학 석좌교수로 재직해온 그는 그동안 '기상중계청', '오보청'이라는 오명까지 들어야 했던 기상청의 구원투수 격으로 한국에 오게 됐다.

2012년 5월 말까지 기상선진화추진단을 이끌 크로퍼드 단장은 "한국 기상청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상선진화추진단은 각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기상관측, 예보, 기상분석 등의 분야를 선진국 수준으로 이끌 '기상선진화 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한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기상청 개선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기상 관련 기관들도 기상분석 컴퓨터 모델의 발달에 맞는 예보관의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보관의 역량을 향상시켜 좀 더 정확한 수치예보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미국처럼 모든 기상레이더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2012년까지 마련토록 할 겁니다.

기상레이더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미국은 1백22개의 레이더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분 단위로 기상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보기술(IT) 인프라가 미국보다 낫다고 알고 있어요. 기상청, 국방부 등 여러 기관에 분포된 26개 레이더를 망(網)으로 구축해 다 같이 정보를 공유토록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보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가요.

기상정보는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합니다. 기상정보가 국민의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의 기상 관련법이 바뀌어서 민간도 기상예보 등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는 민간 기상업체들과도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상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날씨의 특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한국은 지형적 특성과 높은 습도의 영향으로 변화무쌍한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8년간 해양기상예보를 담당했는데 그때의 경험을 살려 한국의 날씨예보에 정확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지형에 대해서는 나보다 기상청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상청 직원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은 기상청이 빨리 선진화돼 한국 기상청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미국의 선진 기상 기술과 지식을 한국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꿰맞추지는 않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얼마나 빨리 선진화를 추진하느냐보다 얼마나 올바르게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

글 · 강희경(한국일보 사회부 기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서민금융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 신용 7~9등급 근로자도 500만원까지 대출
(신협 6.30~, 농협·우리 7월~, 국민 8월~)
·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 기관 300곳 확대
· 노점상·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3.4조원 추가(6월)

● 서민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0~4세의 50%는 보육시설·유치원비 전액 지원(7월)
· 차상위계층의 0~1세는 집에서 돌봐도 10만원 지원(7월)
· 소득3분위 가구의 대학생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2학기)

● 암환자, 어린이의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 희귀난치병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 10%로 인하(7월)
·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12월)
· 한의원 물리치료 및 어린이 충치 홈메우기 보험적용(12월)

●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좀 더 쉽도록 하겠습니다

· 3자녀 이상 가구에 공공분양·국민임대주택의 10% 배정(8월)
·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20% 할인(8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주택임대료 16% 인하
·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곳 현대식 화장실 설치

● 영세상인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 대형마트 진출시 시도별 사전조정협의회 운영(7월)
· 전국 전통시장 공용 상품권 발행(7월)
· 여행 새로 일하기센터의 주부인턴·취업훈련 확대(7월)



대한민국정부 www.mosf.go.kr/hope

FTA 국내대책본부장 이성한

"농수산 분야에 10년간 21조원 투입"

올해 한·EU, 한·인도 등 굵직한 자유무역협정(FTA)들이 잇따라 타결됐다. 바야흐로 FTA시대다. FTA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이성한 본부장은 "FTA를 통해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국내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조영철 기자

이성한 본부장은 EU, 미국, 인도와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의 60퍼센트와 FTA를 체결하는 통상개방 선진국이 된다고 말했다.

FTA 국내대책본부는 FTA를 통해 국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기구다. 조용히 내실을 다지는 곳인 셈이다.

지난 2월 취임한 이성한(52) FTA 국내대책본부장은 오랫동안 옛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에 몸담아온 국제통상협상 전문가다. 한·칠레 FTA 협상에 실무자로 참여한 것은 물론 한·유럽연합(EU) FTA 협상에도 관여했다.

그는 "대내협상도 온 국민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산업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FTA의 혜택을 더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한·아세안, 한·EU, 한·인도 등 FTA 체결이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 FTA 체결이 최근에 갑자기 많아진 것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타결된 FTA는 2003년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오랜 협상을 거쳐 성사된 것입니다. 협상 개시 이전부터 상대국과의 FTA 발효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우려되는 것은 어떤 점인지 등을 충분히 연구했습니다. 협상 역시 한·EU FTA는 약 2년 동안, 한·인도 CEPA는 약 3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 그리고 치밀한 협상 끝에 이룬 결실입니다.

왜 우리에게 FTA가 필요하고 중요한가요.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FTA 특혜무역 비중은 12.1퍼센트

우리나라 FTA 협상 진행 상황

발효 국가	칠레, 싱가포르, 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아세안(상품, 서비스 분야)
협상 타결 국가	미국, 인도, 아세안(투자 분야), EU
협상 중인 국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페루, GCC(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추진 여건 조성 중인 국가	멕시코, 일본, 터키, 콜롬비아, 중국, MERCOSUR(남미공동시장), 러시아, 이스라엘,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로 세계 특혜무역 비중 50퍼센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후발주자인 중국(19.7퍼센트), 일본(14.7퍼센트)보다도 낮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70퍼센트를 넘습니다. 현재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넓히는 길뿐입니다. 자유무역의 확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수불가결합니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상대국의 경제 규모는 4.4퍼센트에 불과했지만 EU, 미국, 인도와의 FTA가 차질 없이 발효되면 세계시장의 60퍼센트와 FTA를 체결한 통상개방 선진국이 될 전망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이 공식서명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발효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나요.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비준 지연으로 인해 경제적 기회비용이 연간 15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이 중요합니다. 지난 6월 16일 한미 정상이 회담을 통해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미국 측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양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고 우리도 국내비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FTA 국내대책본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FTA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FTA로 야기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내대책의 수립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본부는 FTA와 관련된 모든 국내대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FTA가 우리 경제의 확고한 성장동력이 되도록 뒷받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FTA 협상의 결과,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FTA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기업들이 FTA 체결로 조성되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관세인하 등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내 농가 및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나요.

정부는 FTA 체결이 가져올 일부 취약 분야의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를 경제 선진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 분야의 경우 향후 예상되는 15년간 생산감소예상액(10조5천억원)의 2배 수준인 21조1천억원을 앞으로 10년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돈은 피해 농어민에 대한 직접적 피해 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등에 쓰입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에 대해 컨설팅 및 각종 지원을 해줄 겁니다.

FTA가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널리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책자 발간, 교육, 포털사이트는 물론 다양한 매체를 통해 FTA 체결 내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들이 FTA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FTA 활용률이 높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 8월 26일부터 연말까지 5회에 걸쳐 지방 주요 도시에서 FTA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설명회는 지금까지 체결된 FTA의 주요 내용과 관세 및 원산지 증명 등 FTA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희망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관세사, 해외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직접 컨설팅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들이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G

글 · 최호열 기자



동아DB

FTA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다. 사진은 상파울루공항에 있는 LG 매장.

FTA 지역 설명회 일정

9월 3일(목)	대구·경북	대구전시컨벤션센터
9월 30일(수)	경기	차세대융합기술원컨퍼런스룸
10월 14일(수)	대전·충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월 22일(목)	광주·전남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광주)

세계 속의 한민족 여성 리더들 한자리에

Fun(즐거움)+Unique(자립심)+Nurturing(인재양성) 여풍당당 글로벌 리더

전 세계에서 활약 중인 한민족 여성 리더들의 모임인 2009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가 8월 25일부터 나흘간 인천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32개국 5백20여 명의 여성 리더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한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되새겼다.


동아DB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8월 26일 오전 2009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회식에 참석해 해외지역 담당관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여성부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영종도 하얏트 리젠시호텔에서 인천시와 공동으로 2009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행사를 열었다.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그동안 한국의 세계화와 여성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전 세계에서 활약 중인 한민족 여성 리더들의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외 한민족 여성 간의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한 올해 행사는 32개국에서 여성 리더 5백20여 명(국외 2백40여 명, 국내 2백8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라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 기존 참가지역은 물론 케냐, 몽골 등 세계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여성 경제리더들이 대거 참석했다. '펀(Fun) 경영'으로 유명한 경영 트레이너이자 2003년 미국 서부지역 소수민족상을 수상한 진수 테리 씨와 2005년 아시아 여성경제인상을 수상한 김선종 씨, 미국 LA 커뮤니티칼리지위원회(LACCD)의 최연소 이사이자 최초의 한국인인 박티나 씨, 2008년 비추미여성상 특별상을 수상한 김영기 교수 등이 그들이다.

"여성의 유연한 리더십 미래 사회 열쇠 될 것"

정치, 경제, 법률, 단체 등 현지 주류사회에서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재외 여성 리더들은 8월 26일 오전 개막식장을 가득 메우며 행사를 뜨겁게 달궜다. 변도윤 여성부 장관의 개회사로 시작된 개막식에는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롯해 안상수 인천시장, 신낙균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한

민족 여성 리더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속적인 단합과 협력을 독려했다.

김윤옥 여사는 축사에서 "21세기에는 여성의 유연하고 따뜻한 리더십이 경제, 환경, 인구문제 등을 풀어나갈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한식 세계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참가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해 한민족 여성 간의 경제연합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 국력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발전해나가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기조강연을 한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소프트파워가 절실한데 한민족 여성네트워크는 소프트파워 네트워크로서 민간외교의 적임자"라며 "참가자 개개인이 공감대를 갖고 각자의 거주국에서 할 일을 다하면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소프트파워가 절실한데 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소프트파워 네트워크로서 민간외교의 적임자다. 참가자 개개인이 공감대를 갖고 각자의 거주국에서 할 일을 다하면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이날 오후에는 '한민족 여성경제인과 경제리더 연대 및 멘터링'과 '한민족 여성 경제연합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그룹 토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진수 테리 씨는 '불확실한 시대에 글로벌 리더가 가져야 할 9가지 스킬'에 대한 강의로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는 'F+U+N=글로벌 리더'라는 등식을 제시하며 "글로벌 리더는 즐거움(Fun)과 자립심(Unique)과 인재양성능력(Nurturing)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리더에게 필요한 9가지 스킬로 대화의 능력(Communication), 현실적 낙관주의(Optimism),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Openness), 독창성(Originality), 끝없는 쇄신(Innovation), 강한 자신감(Confidence), 진심 어린 애정·관심·배려심(Caring), 섬김(Serving), 공헌과 기여(Contribution)를 제시했다.



2009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에 참석한 한민족 여성 리더들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더욱 긴밀한 협력과 우의를 다졌다.

이에 앞서 8월 25일에 해외 참가자 오리엔테이션과 비공개 지역담당관회의를, 27일에는 투자유치설명회를 진행한 여성부는 28일 인천 세계도시축전장 방문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여성부 강선혜 교류협력과장은 "국내외 한민족 여성 간의 경제 활성화라는 주제에 맞게 여성경제인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이 올해 행사의 특징"이라며 "참가자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이 해야 할 경제적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더욱 긴밀한 협력과 우의를 다졌다"고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변도윤 여성부 장관

"전 세계 누비는 코리안 여성 파워 실감했다"


정경택 기자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의 목적은.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정부의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한층 폭넓고 탄탄하게 구축하는 데 있다. 또한 한국과 재외동포 사회를 잇는 하나의 연대를 통해 여성의 사회 주류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내외 한민족 여성 간의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국내외 여성들의 힘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해 국외 참가자 중 60퍼센트가 여성경제인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민족 여성경제인들의 연대가 더욱 긴밀해지고, 한민족 여성 간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상당한 여성네트워크가 구축됐을 것 같다.
지난해까지 45개국에서 9백여 명의 재외 한민족 여성 리더들이 참가함으로써 많은 네트워크가 축적됐다. 특히 매년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예술 등 회의 주제를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 분야의 여성 리더들이 모여 분야별 네트워킹, 1 대 1 멘터링 등을 실시하면서 네크워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여성부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매년 1회 한국에서의 전체회의 외에 해외 지역별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반기별로 현지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 각국에 지역담당관을 늘려 지역사회에 맞는 네트워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역, 세대, 시공간 차이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네트워킹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전용 홈페이지(http://kowin.moge.go.kr)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숨은 그린맨(Green Man)은 모두 몇 명일까요?



일러스트 · 남동윤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9월 9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5명에게 문화상품권과 녹색생활 실천 머그컵을 드립니다. 정답 및 당첨자는 〈Weekly 공감〉 29호(9월 16일자)에 발표합니다.

동아DB



기후변화로 갈 곳 잃은 북극곰의 오늘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녹색생활은 우리의 미래를 구하는 지름길이다.

위기의 지구… 해법은 우리 생활 습관

"녹색기술보다 중요한 건 녹색생활"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린다. 얼음조각에 갇힌 북극곰이 안절부절못하며 얼음 위를 오간다.
TV를 통해 북극곰의 처지를 지켜보는 인간의 마음도 안타깝다. 북극곰의 처지, 인간의 운명과 별개일까.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나비 효과'처럼
'북극곰 효과'가 언젠가 한반도, 나아가 지구를 휩쓸지도 모른다.

"지난 1백 년간 지구 평균기온이 섭씨 0.74도 올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구 평균보다도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얼음이 녹아 굶어 죽는다는 북극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동해에는 명태가 사라지고 남부지역에서는 소나무가 위협받고 있다. 대구의 명물이던 사과가 이제는 중부지방 위쪽에서도 열리고 있다. 일부 해수면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빨리 높아지고 있다"고 우리나라의 급격한 환경변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금 한반도, 나아가 지구를 위협하는 기후변화는 자연적, 인위적 원인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화석연료 사용, 폐기물 소각, 반추동물 사육, 냉매와 세척제, 분사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 중 온실가스(GHG) 증가다.

2007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9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실무그룹 회의에서 공식 승인된 IPCC 제4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CO_2), 메탄(CH_4), 아산화질소(N_2O) 등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했으며 특히 1970년대부터 2004년 사이에 이전 대비 70퍼센트까지 증가했다. 석탄과 석유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전체 온실가스 중 88.6퍼센트 차지) 배출의 경우 1970년대에서 2004년 사이에 약 80퍼센트가 증가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환경오염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

IPCC 제4차 평가보고서는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의 변화는 기후변화 완화에 대해 전 부문에 걸쳐 기여할 수 있다"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활 습관의 변화를 중시하며 생활 속의 문화

패턴, 소비 선택, 기술 사용, 도시 계획, 자동차 이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월 10일 라디오 · 인터넷 연설에서 "녹색기술보다 중요한 게 녹색생활"이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3분의 1 이상 감축할 수 있다"며 "절약은 제5의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며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녹색실천운동이 중요한 것은 가정, 상업, 교통, 공공 등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산업 부문의 경우 산업 부문보다 감축 비용이 낮으며 감축 효과가 즉각적이고 가시적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녹색생활 습관의 조기정착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환경부와 녹색성장위원회는 8월 24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 실천방안은 △범국민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 △녹색생활 인센티브제 강화 △실천 지원시스템 구축 등 크게 세 가다으로 나눌 수 있다. 목표는 생활 속의 온실가스 10퍼센트를 줄이는 것이다.

> "대다수 국민이 녹색생활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녹색생활을 하는 데는 부담을 느끼고 어렵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녹색생활은 시도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녹색생활에서는 국민이 자발적, 쌍방향적 친환경 실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사진은 2009년 광복절 경축식.

범국민 녹색생활 실천운동은 정부와 민간이 파트너십을 이룬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절약 운동, 여성부의 위그린(We Green) 운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실천운동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그린스타트(Green Start) 운동과 연계를 강화하게 된다. 주부, 학생, 군인 등 계층과 직업군별로 분류해 녹색생활을 위한 세부 실천사항을 발굴해 가정의 녹색생활과 녹색소비 촉진, 녹색직장 만들기, 녹색교통운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녹색인력 양성 · 교과과정 개발 등 총력

이러한 녹색생활 실천운동의 하나로 9월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여하는 '녹색생활 실천 국민캠페인' 행사가 열린다.

녹색생활 인센티브제 강화는 정보기술(IT) 활용과 생산 · 유통자에 대한 혜택 부여,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시상 및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가정과 직장에 실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탄소포인트제 시행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직장 내 인센티브제 도입을 장려한다. 또 생산 · 유통 분야 인센티브를 확대해 녹색제품 인증을 강화하고 우수 기술과 제품을 널리 보급하며 그린스토어 인증제를 추진한다.

녹색생활 실천 지원시스템 구축에는 녹색생활 핵심인재 양성이 중심을 이룬다.

먼저 '그린스쿨' 사업이 추진된다. 친환경 기법이 적용돼 있지 않은 노후 초중고등학교를 친환경 자재 사용과 생태환경 조성 등으로 자연친화적 학교로 개선한다. 올해 모두 52개 학교가 지정됐으며 1천9백60억원이 지원된다. 1999년부터 전개돼 온 산림청의 학교숲 조성사업은 올해까지 8백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이 완료돼 청소년 환경교육은 물론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밖에 녹색성장 관련 교과과정 개발과 운영, 교내외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을 위한 '연구학교(총 47개 학교)' 운영, 대학의 '그린캠퍼스 조성 운동'과 더불어 학생, 일반인, 공무원 등에 대한 범국민적 녹색생활 교육에도 힘쓰게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경영본부 정혜승 연구원은 "대다수 국민이 녹색생활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녹색생활을 하는 데는 부담을 느끼고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녹색생활은 시도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더 많은 국민이 녹색생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녹색생활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녹색생활에서는 국민이 자발적, 쌍방향적 친환경 실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녹색생활 일등공신 대한민국 주부 짱!

조금 부족하게 요리하자

음식은 제철 재료로 먹을 만큼만 만들고 전기, 가스, 수돗물을 아끼고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일. 이 같은 가정의 녹색습관은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실천할 수 있다. 사소하지만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실천해야 할 중요한 일이 주부들의 손에 달려 있다.







1 노숙이 씨는 현관문과 맞은편 베란다 창문을 열어두면 맞바람이 쳐서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다고 말한다. 현관문에는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롤 방충망을 달았다.
2 설거지를 할 때는 일반 주방세제 대신 친환경 세제인 쌀뜨물로 만든 EM 발효액을 사용해 물 낭비와 수질오염을 줄이고 있다.
3 시중에서 파는 음료수 대신 매실, 복분자, 오미자 등을 제철에 사서 농축액을 만들어 두고 물에 희석해 마신다.

녹색가정

서울 구로구에 사는 노숙이(49) 씨는 여름이면 아파트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산다. 현관문과 맞은편 베란다 창문을 열어두면 맞바람이 쳐서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열어둔 현관에는 모기나 날벌레가 날아드는 것을 막기 위해 롤 방충망을 설치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빼두거나 멀티탭의 스위치를 꺼두는 것은 기본이다. 덕분에 네 식구가 사는 이 집의 전기료는 월 3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근검절약을 강조하셨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공중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거나 수돗물이 덜 잠긴 것도 그냥 못 보거든요."

노 씨는 설거지도 개수대에 물을 받아놓고 하고, 일반 주방세제 대신 쌀뜨물로 만든 EM(Effective Micro-organisms) 발효액을 사용해 물 사용을 줄이고 있다. 유용한 미생물군이라는 뜻의 EM 원액에는 효모, 유산균, 누룩균, 방선균 등 미생물 80여 종이 들어 있는데 이를 발효시켜 사용하면 악취 제거, 수질 정화, 금속 및 식품의 산화 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 쌀뜨물 EM 발효액은 쌀뜨물에 EM 원액과 당밀 등을 넣어 발효시킨 것으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다. 페트병에 쌀뜨물을 3분의 2 정도 넣고 EM 원액(친환경상품 매장에서 판매)과 설탕(또는 당밀)을 같은 비율로 넣어 잘 섞은 뒤, 뚜껑을 닫아 따뜻한 곳에서 일주일 이상 발효시키면 된다.

재활용은 기본, 친환경 물품 사용 생활화

"일반 주방세제는 거품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헹구려면 물을 많이 쓰게 되고, 그래도 그릇에 세제 찌꺼기가 남아 있을 것 같아 안심이 안 되거든요. EM 발효액은 거품이 없으니까 물을 적게 쓰면서도 기름기까지 깨끗하게 닦아져요. 또 세제처럼 수질오염을 일으키지도 않고요."

EM 발효액은 쓰임새가 무척 많다. 가스레인지나 환기팬의 기름때를 제거하고 냉장고를 닦을 때도 좋고 욕실의 곰팡이나

물때, 냄새를 없애는 데도 효과가 있다. 노 씨는 마트에 가면 세제 종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쌀뜨물 EM 발효액 하나면 만사형통이라고 말한다.

알뜰 주부인 노 씨에게 환경 사랑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 음식은 그때그때 먹을 만큼만 만들고, 사먹는 음료 대신 매실이나 복분자, 오미자 등을 제철에 사서 농축액을 만들어뒀다가 희석해서 마신다. 시장에 갈 때 장바구니를 꼭 챙기는 그는 마트에 장바구니를 가져가면 50원을 깎아주는데 왜 비닐봉투를 사용하느냐고 되묻는다.

그의 집에는 재사용이나 재활용하는 것들도 많다. 식탁은 이사 가는 친구가 버리려는 것을 가져온 것이고, 거실의 의자도 멀쩡한 물건이 버려지는 것을 못 보는 그가 주워온 것이다. 남편의 오래된 넥타이로는 치마와 조끼를 만들었다. 다양한 색상과 무늬의 넥타이를 세로로 이어 붙여 만든 치마와 손바느질로 누빈 조끼는 패셔너블해서 외출복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환경단체 가입, 안양천 살리기에도 한몫

노 씨의 녹색생활은 집안일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지역 환경단체인 '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은 지난해부터 서울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EM 발효액 만들기, 천연화장품 만들기,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 만들기,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 만들기, 아크릴사를 이용한 수세미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안양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EM 흙공(EM 발효액을 흙과 섞어 주먹 크기로 뭉쳐놓은 것)을 뿌리는 작업을 하는 한편 쓰레기 수거, 환삼덩굴, 돼지풀 등 유해식물 제거 작업 등 안양천을 가꾸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환경단체에 참여하다 보니 녹색생활에 대해 배운 것을 집에서 직접 실천하게 되네요. 또 가족, 친구, 옆집 주부들에게도 알리게 되니 저절로 환경운동 전도사가 되는 듯해요. 녹색생활은 캠페인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주위의 주부들을 보면 몰라서 못하거나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6년째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노 씨는 많은 주부들이 환경단체 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단체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구심점이 있어서 실천하는 게 덜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 발전시켜 생태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안양천을 사랑하는



노숙이 씨가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에서는 천연 화장품도 만든다. 그는 자신이 만든 클렌징 오일이 시중의 화장품보다 낫다고 말한다.

"환경단체에 참여하다 보니 녹색생활에 대해
배운 것을 집에서 직접 실천하게 되네요.
또 가족, 친구, 옆집 주부들에게도 알리게 되니
저절로 환경운동 전도사가 되는 듯해요.
녹색생활은 캠페인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민의 모임'에서 양성한 '안양천 풀꽃사랑 생태해설가'는 노 씨를 포함해 20명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양천 주변의 동식물에 대해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생태해설가로 활동하면서 아직 우리나라의 환경교육과 생태체험문화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말한다.

"요즘 아이들은 곤충과 꽃보다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더 관심이 많아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공부만 강조하는 분위기가 아이들을 자연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노년에는 시골에서 꽃을 가꾸며 살고 싶다는 노 씨는 많은 이들이 자연 속의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고, 자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만큼 환경을 지키는 일상생활의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G



글 · 이혜련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녹색습관 집에서 시작해요

1. 냉난방 온도는 여름엔 섭씨 26도 이상, 겨울엔 20도 이하로 유지한다. 냉난방 온도를 1도 조정할 경우 연간 1백10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와 3만4천원의 냉난방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 절전형 전등으로 바꾸자. 60와트의 백열등을 24와트의 형광등으로 바꾸면 연간 1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절전형 형광등은 백열등보다 수명이 약 6배 길고 전력 소비가 적다.
3. 가전제품 플러그는 뽑아둔다. 대기전력은 기기 이용 전체 전력의 약 10퍼센트를 차지한다. 멀티탭은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손쉽게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4.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자. 승용차를 일주일에 하루만 덜 타도 연간 4백45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5. 장바구니를 애용하자. 연간 1백60억 개가 사용되고 있는 1회용 비닐봉지는 분해되는 데 1백 년 이상 걸린다.
6. 친환경 상품을 구입한다. 친환경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연간 3백50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7. 샤워 시간을 줄이고 빨래는 모아서 한다. 샤워 시간을 1분 줄이면 가구당 연간 4.3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빨래를 모아서 하면 가구당 연간 14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8. 음식은 약간 적다고 느껴질 만큼만 조리한다.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15조원이 넘는다. 또 몸에도 좋고 온실가스도 덜 발생시키는 제철 식료품, 지역 농산물을 먹자.


전자결재 등을 통해 종이를 줄이는 업무환경 구현을 통해 그린 오피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그린 오피스 만들기 으뜸수칙

퇴근할 때 전기 플러그 뽑자

원격영상회의, 전자결재, 원격근무와 같은 정보기술(IT) 기반의 녹색 정보화로부터 컴퓨터 전원 끄기, 개인컵 사용과 같은 손쉬운 실천생활까지 '그린 오피스'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다. 모범적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그린 오피스 현장을 찾았다.

녹색직장

오후 3시, 권영일 국가정보화사업단 녹색정보화지원부장이 회의실로 향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청사와 공동회의를 하는 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의 발언과 동시에 모니터에 등촌동 청사 회의실 모습이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눈앞에 있는 것 같은 생생한 영상을 보면서 1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일반인에게는 조금 낯선 원격영상회의지만, 서울 중구 무교동에 본사를 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 7월부터 주요 간부회의와 해외 파견사원 회의, 그리고 '청계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격주 전 사원 대상 교양강좌를 모두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이동 시간과 거리를 줄여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그린 오피스' 전략의 하나다.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대신 터키나 칠레 등과 국제협력 사업을 할 때 사용하던 기존 영상회의 장비를 재배치하고 LCD TV 등 유휴장비를 이용해 3천7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했다.

"예전엔 본사와 등촌동 청사를 오가느라 회의 한 번 참석하려면 반나절은 족히 걸렸다"며 "원격영상회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시간 절약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권 부장은 설명했다.

형광등 격등제로 전기세도 줄여 '일거양득'

원격영상회의뿐만이 아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실내 온도는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섭씨 26도)보다 1도 높게 설정돼 있다. 에어컨 소비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신 직원들에겐 휴대용 미니 선풍기를 지급해 개인별로 더위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출퇴근 정체가 심한 시간대를 피해 출근토록 해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유연근무제 도입, 전자문서 활용 등으로 불필요한 서류를 사무실에서 내쫓는 탈(脫)종이 환경 구현, 전산서버를 통합·감축하는 정보자원 그린화 등 업무환경 전반에 걸쳐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탈종이 업무환경과 정보자원의 그린화는 기관 성격상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소모한 용지의 양만 해도 A4 용지 1천여 상자에 달한다.

정병주 국가정보화사업단 녹색정보화지원부 책임연구원은 “양면인쇄나 모아찍기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생활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연구보고서를 디지털화하고 보고방법을 서면 위주에서 CD나 파일, 웹 활용 등으로 전환하는 근본적 변화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내 정보시스템 서버를 적정 수준으로 통합하여 전산실의 전력 소비와 냉각 비용을 줄이는 그린 서버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전거 출퇴근 장려, 재택근무 등에도 관심

작은 실천들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7월부터 격등제와 비상구 자동센서등 교체, 점심시간 강제 소등 등을 실천하고 있다.

정 책임연구원은 “3개들이 형광등 중 한 개나 두 개만 켜는 격등제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이면 타이머에 의해 자동으로 사무실 전체를 소등하는 등 작은 실천으로 지난해 여름 2천만원에 달하던 전기요금이 올여름엔 1천6백만원 정도로 줄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원격재택근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8월 25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IT기반 원격근무 재조명과 정책이슈’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원격근무 도입이 0.7퍼센트에 불과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무려 20배 이상 뒤진다고 한다.

권영일 부장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체 직원의 16퍼센트가 서울 외곽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며 “이들이 거주지와 인접한 청사에서의 근무 혹은 재택근무를 한다면 1인당 월 2백9킬로그램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같은 원격재택근무는 또한 육아문제에 시달리는 여성 근로자나 장애 근로자들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IT기반 원격근무는 지난 5월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그린 IT 국가전략’의 주요 과제로도 선정된 바 있다.

그린 오피스로의 전환은 무엇보다 전 직원의 참여가 중요하다. 김성태 원장은 “우리는 국가 정보화와 전자정부 사업 등 다양한 IT 관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그린 오피스 정책을 선도하는 최적의 기관”이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그린 오피스 태스크포스(TF)팀을 원장 직속에 두고, 매월 성과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해외 성공사례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외에도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이 직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자전거 출퇴근제’도 한 예다. 이 회사는 8월부터 직장에서 3킬로미터 이내 근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원들에게 자전거 이용을 의무화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그래픽디자인 회사 ‘디자인 스튜디오 203’은 종이컵을 아예 치워버렸다. 직원 각자의 개인컵 사용은 물론 여분 컵을 준비해두고 손님들도 이용하도록 장려한다. 또 모든 이면지는 A4 크기로 잘라서 이면지함에 넣어두고 활용한다. 고성주 실장은 “이전에는 커피를 먹건, 물을 마시건 습관적으로 종이컵을 써서 사용량이 꽤 많았다. 개인컵으로 바꾸니 귀찮긴 해도 확실히 절약이 된다”고 말했다. G

글 · 정지연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우리 사무실 녹색 아이디어

1. 냉난방 온도는 실내 적정 온도(여름 26~28℃ 겨울 18~20℃)를 유지하고, 여름엔 넥타이를 풀고 겨울엔 내복을 입어 체감효과를 높인다.
2. 퇴근할 땐 전기 플러그를 뽑는다. 대기전력은 에너지 제품 이용전력의 약 10퍼센트를 차지한다.
3. 컴퓨터는 절전모드를 설정하고, 쓰지 않을 땐 전원을 끈다.
4. 4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한다. 엘리베이터 1회 이용은 12.7그램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5. 하루 1시간 동안 형광등 15개를 끄면 연간 74킬로그램의 온실가스가 줄어든다. 사람이 없는 점심시간에는 일제 소등을 하자.
6. A4 1박스 인쇄 용지는 약 4.4킬로그램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이면지를 적극 활용한다.
7. 개인컵 사용을 생활화한다. 하루 종이컵 5개만 줄여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킬로그램을 줄일 수 있다.
8.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출퇴근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출퇴근 정체가 심한 시간대를 피해 출근토록 해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유연근무제 도입, 전자문서 활용 등으로 불필요한 서류를 사무실에서 내쫓는 탈(脫)종이 환경 구현, 그린 서버 구축 등 업무환경 전반에 걸쳐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원격영상회의로 이동 시간과 거리를 대폭 줄였다.



인천 진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정충기 교무부장과 함께 태양열로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인천 진산초교 '저탄소 교육'

"학교에서 배워서 엄마와 함께 실천해요"

녹색학교

"우리 집은 올여름에 에어컨 안 틀었다." "우린 주말에만 1시간씩 켠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진산초등학교(교장 민춘홍) 3학년 1반 교실. 개학 다음 날 아이들은 여름방학 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에너지 절약에 기여했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참았다는 김민혁 군은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7만원이나 적게 나왔다고 엄마가 용돈으로 8천원을 주셨다"고 자랑했다.

담임인 정충기(49) 교무부장은 1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라며 "학부모들을 통해 아이들이 가정에서 환경 감시자가 다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을 때 흐뭇하다"고 말했다.

진산초등학교는 지난 3월부터 학교특색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을 준비하는 녹색교육'으로 정하고 전교생과 학부모들에게 친환경 생활방법을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복도 벽면, 교실 게시판, 화장실 등 학교 곳곳에 붙어 있는 표어와 문구들을 모두 환경 관련 내용으로 바꾸고, 전교생이 2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환경조회 시간을 갖고 있다. 또 환경부가 제작한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글로 쓰고 있다. 한번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교에서 배우고 가정에선 '환경 지킴이 역할' 톡톡

환경동아리 '신재생에너지'를 운영하는 정 교무부장은 체험을 통한 친환경적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학기 중에는 물론 방학 때도 가족과 함께 찾아가는 과학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주문진 연곡천과 금강 등 1급수 하천을 찾아다니며 민물고기 찾기를 했고 하천의 건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수소이온농도(PH)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측정했다.

"학교 근처에 있는 굴포천과 이번에 찾아간 곳의 수질검사 결과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동아리는 태양열을 모으는 기구나 태양광을 이용해 달리는 모형자동차를 만들어 태양열의 대체에너지 가능성을 실험하기도 했다. 1학기 동안 얻은 환경지식을 바탕으로 정 교무부장이 이번 학기에 구상 중인 작업은 '자연에너지 자전거로 1주일 여행하기'다. 정 교무부장은 "자전거에 태양열을 모을 수 있는 장치와 달릴 때 생기는 바람을 이용한 발전장치를 만들고 실제로 운행도 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름방학 중에도 닷새만 쉬고 환경 관련 활동을 계속했다는 정 교무부장은 2학기에는 물과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와 비교해 수치로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산초등학교에서는 급식 때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적당히 덜어먹는 훈련, 학교 텃밭 가꾸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G

글 · 강선임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인천진산초등학교 032-511-3713, www.ijs.es.kr/class/



공부도 열심히! 녹색실천도 열심히!

1. 어두운 곳엔 고효율 전등, 밝은 곳엔 햇살전등.
2. 컴퓨터 전원을 끄면 1백 와트의 전력을 절감해 매시간 42.4그램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3. 종이 대신 e메일 알림장을 사용한다.
4. 교복과 교재는 깨끗하게 쓰고 물려주자. 교복 물려주기에 5명 중 1명씩만 참여해도 연간 5백 2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 교과서 20퍼센트만 물려 써도 2천2백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5. 급식은 적당하게 담고 남기지 말자.
6. 걸레를 빨 때는 물을 받아서 쓰고, 수도는 적당한 수압으로 사용한다.
7. 빈병과 캔은 분리수거. 알루미늄캔 1개를 재활용하면 60와트 백열전구를 약 27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절약된다.
8. 교실별로 녹색생활 지킴이를 지정하고 온실가스를 줄여나간다.

연비 높이고 환경도 생각하는 나는야 '녹색' 운전자

동아DB



친환경 자동차 사용과 경제속도 준수,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은 연비를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운전 10계명' 이다.

녹색운전

트렁크에서 불필요한 짐 치우기, 일기예보로 날씨 확인하기, 비 오는 날에는 타이어 공기압 높이기…. 보안업체인 에스원 서울본부 CS지원팀 안교순(35) 주임의 요즘 운전할 때 버릇이다. 안 주임은 지난 6월 20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교통안전공단 성산검사소에서 열린 '친환경 가족 운전왕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녹색운전 실천자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주관으로 열린 '친환경 가족 운전왕 선발대회'는 친환경 운전습관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한 대회로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후원했다.

안 주임이 운행하는 2005년형 매그너스는 원래 연비가 리터당 9.5킬로미터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친환경 운전만으로 거의 두 배인 리터당 17킬로미터를 기록했다. 안 주임은 이번 대회를 위해 지난 대회 우승자의 수기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대로 실천했다고 한다. 천천히 출발하고, 경제속도를 준수하고, 내리막길에서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는 등 친환경 운전을 꼼꼼하게 실천했다.

"몸에 밴 운전습관 탓에 갑자기 친환경 운전을 하려니 쉽지는 않았다"는 안 주임은 "작은 습관들을 바꾸면 연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친환경 운전 서명운동 80여만명 참여 등 관심 높아

환경부 이규만 교통환경과장은 "친환경 운전으로 가장 효과를 보는 부분은 이산화탄소 저감과 에너지 절감"이라며 "지난 1월 20일부터 올 연말까지 예정된 친환경 운전 1백만명 서명운동에도 이미 80여만명이 참여하는 등 녹색운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수상자들의 운전습관 및 수기 등을 토대로 만든 '친환경 운전 10계명'을 담은 '그린카 대작전'이란 팸플릿을 배포 중이다. 경제속도 준수, 내리막길 운전 시 가속페달 밟지 않기, 출발은 천천히, 공회전은 이제 그만,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는 센스, 한 달에 한 번 자동차 점검, '정보운전'의 생활화, 트렁크를 비우자, '친환경 자동차' 선택, 유사연료·인증을 받지 않은 첨가제는 NO! 이것이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친환경 운전 10계명'이다. G

글·박경아 기자



푸른 내일로 달리는 녹색운전

1. 경제속도(60~80킬로미터)를 준수한다. 속도 변화가 큰 운전을 하면 연료가 최대 6퍼센트까지 더 소비된다.
2. 과적을 하지 않는다. 2백20킬로그램의 짐을 추가하면 연료가 2퍼센트 더 소모된다.
3. 물건을 싣고 내릴 때는 시동을 끈다. 승용차가 5분간 공회전하면 연간 1백21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더 배출된다.
4. 혼잡구간과 시간을 파악해 운행 효율을 높인다. 정체구간 통과는 공회전과 유사하다.
5. 물류터미널 공동 이용으로 화물 수송·배송거리를 단축한다.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일 수 있다.
6. 차량은 주기적으로 점검해 대기오염을 줄인다. 타이어 공기압, 에어클리너, 인젝터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에너지 손실을 줄인다.
7. 에어컨은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에어컨을 켜면 최대 20퍼센트 정도 연료 소비가 증가한다.
8. 화물을 운송할 때는 덮개를 씌운다 비산먼지를 줄이고 화물의 낙하를 예방해준다.

햇빛 모아 영화 보고 가로등 켜고

‘에너지 자급자족’ 전북 부안 등룡마을



건강한 자연을 키우는 녹색마을

1. 농약병, 폐비닐을 반드시 회수한다.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2. 비료는 필요한 양만 사용한다. 화학비료뿐 아니라 유기질 비료도 지나치게 사용하면 땅과 물을 오염시킨다.
3. 환경친화적 해충 방제로 농약 사용을 줄인다.
4. 가축 분뇨를 방치하거나 버리지 말고 퇴비로 만들어 농지에 환원한다.
5. 무단 소각을 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10킬로그램 소각 시 28.1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또 폐비닐, 페트병을 소각하면 악취와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6. 농기계는 마을별로 공동 사용하여 비용을 줄인다.
7. 태양열, 지열, 폐목재 등을 난방에 이용한다.
8.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적극 참여한다. 농산물이 가까운 지역에서 유통되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다.

녹색농촌

해가 쨍쨍한 여름 한낮. 전력계량기 숫자가 거꾸로 내려가는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태양광을 이용해 만들어지는 전력량이 한전에서 전봇대를 타고 오는 전력량보다 많기 때문이다. 전북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등룡마을에 있는 부안시민발전소에는 4, 5개월에 한 번씩 전기요금 청구서가 날아온다. 고지된 전기요금은 단돈 1천원. 전기요금 청구서는 월 1천원이 넘어야 발송되는데 부안시민발전소의 전기요금은 월 몇백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몇 달치 요금을 모아 1천원이 넘으면 보내는 것이다.

등룡마을은 30가구에 60여 명이 사는 평범한 농촌마을이다. 하지만 2005년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돈을 모아 ‘시민발전소’를 세운 특별한 마을이기도 하다. 2003년 부안 핵폐기물처리장 반대운동으로 홍역을 치른 주민들은 에너지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태양, 땅,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해 전기를 스스로 생산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현재 등룡마을에는 36킬로와트(kW/h) 규모의 ‘햇빛 발전소’가 있다. 지난해 햇빛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는 모두 2만2천 킬로와트. 1킬로와트당 7백16.4원에 한전에 판매해 한 달에 약 2백60만원씩 벌고 있다.

전기요금 5개월에 한 번 1천원… 신재생에너지의 힘

등룡마을에서는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할 뿐 아니라 태양열을 이용해 난방, 온수 공급, 조리도 하고 있다. 또한 지하 1백50미터 깊이에 3개의 히트펌프(Heat Pump)를 설치해 지열에너지로 냉난방을 한다. 여름에는 실내의 높은 온도를 땅속으로 보내고, 겨울에는 땅속의 열을 끌어올려 난방을 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는 아직 마을 교육관과 인근 가정집에서만 사용하는 정도지만 겨울에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었다.

1킬로와트의 작은 규모지만 풍력발전기도 있다. 풍력발전기는 주민들이 직접 날개를 달고 코일을 감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이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전력을 축전기에 모아서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고 가로등을 켜기도 한다.

햇빛 발전소가 들어설 때만 해도 “햇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게 정말이냐”고 반신반의했던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참여 열기가 높아졌다. 이제는 자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에도 열심이다. 백열등을 고효율 전구로 바꾸고 멀티탭을 설치하는 등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등룡마을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자발적으로 이끌어가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6월 10일 기후변화 대응 지역우수사례 발표회에서 등룡마을을 소개한 전북도청 환경정책과 박명용 사무관은 “등룡마을은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보물 같은 곳”이라며 “이 같은 노력이 전국으로 퍼져 우리나라가 청정에너지 국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등룡마을 주민들이 풍력발전기를 만들고 있다. 옆에서 아이들이 뒷바퀴를 떼어내고 발전기를 단 자전거를 돌리고 있다. 자전거를 돌려서 만들어진 전기로 선풍기를 돌리고 가로등도 켠다.



부안시민발전소

"충성! 탄소 마일리지 모아 2박3일 휴가를 명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병역의무를 다하는 군 병영에도
녹색 바람이 불고 있다. 자연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라는 믿음으로
녹색병영 가꾸기, 에너지 절약, 자전거 타기 등을 실천하는
육군 55사단 장병들의 친환경 노력을 돌아보자.


흐뭇한 표정으로 자신의 탄소 마일리지를 확인하고 있는 육군 55사단 병사들.

녹색군대

선풍기나 형광등을 잘 끄고,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포상 외박이 주어진다? 군(軍) '탄소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인 육군 55사단 170연대 기동중대 병사들의 이야기다. 이 부대에서는 지난 6월부터 육군이 올 들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 야전부대' 운영을 위해 도입한 '탄소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 부대 병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32개 항목에 대한 실천 정도에 따라 가감(加減) 점수를 받는다. 예를 들어 사람이 없는 생활관(내무반)에 선풍기나 형광등, TV를 켜놓은 채 외출하면 −0.3~−0.1점, 월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적은 소대는 전원 +2점이다. 또 금연 약속을 지킨 병사는 +1점, 매점(PX) 이용 시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쓰면 +0.1점을 받는다.

이렇게 모은 점수를 합쳐 일정 수준에 이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PC방이나 게임방·노래방 이용권(0.5점), 근무 1회 면제(5점), 1일 외박(10점) 등을 선택할 수 있고 30점을 모으면 2박3일 휴가로 쓸 수 있다. 상점과 벌점 현황은 부대 복도 게시판에 붙여놓아 부대원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기동중대장 박예원(30) 대위는 "카드 회사 등이 시행 중인 캐시백 포인트 제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군에서 익힌 환경친화적 생활 습관이 제대 후까지 이어진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55사단은 육군 탄소관리 시스템을 군 최초로 선보였다. 이처럼 탄소 배출 줄이기에 노력한 결과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국민 1인당 평균 배출량 대비 15퍼센트 수준으로 낮아졌다.

기동중대원들뿐만이 아니다. 55사단은 환경부와 연계해 사단의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벌여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 군 환경관리 우수부대로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았다.

55사단은 지난 4월 환경부 등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육군 탄소관리 시스템(ACMS·Army Carbon Management System)을 군 최초로 선보였다. 이는 사용자가 차량, 보일러, 전기, 수도의 분야별 사용량을 입력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종합된 결과를 시각화함으로써 온실가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통계분석 시스템이다. 이를 바탕으로 탄소 배출 줄이기에 노력한 결과 55사단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우리 국민 1인당 평균 배출량 대비 15퍼센트 수준으로 낮아졌다.

육군 탄소관리 시스템은 55사단에 시범 적용 후 내년부터 전 군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55사단은 이 밖에도 병영을 푸르게 만드는 에코트리 심기, 자전거 타기, 잔반 줄이기, 사격장 오염방지를 위한 탄두 회수 등 다양한 방면의 친환경 노력을 펼치고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충성! 녹색생활 이상 무!

1. 녹색생활 지킴이를 지정해 운영한다. 소대별로 녹색생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2. 쓰지 않는 컴퓨터의 전원을 끄면 컴퓨터 한 대당 매시간 42.4그램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인다.
3. 충성클럽 이용 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 폐플라스틱 1킬로그램을 소각할 경우 2.8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4. 기계화 장비 운용 시 공회전을 최소화한다. 친환경 운전으로 2천 시시 차량 1대당 연간 1백30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5. 실내 전등은 절전형 고효율 전등으로 교체한다.
6. 빨래는 모아서 한다. 주 1회 세탁기를 덜 쓰면 연간 22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인다.
7. 먹을 만큼만 담아 잔반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5조원이 넘는다.
8. 플러그를 뽑아 에너지를 절약한다. 대기 전력은 전기기기 이용 전력의 약 10퍼센트를 차지한다.



에코숍에서는 친환경 소재와 공정으로 만든 의류, 완구, 문구, 생활용품을 판매한다.

광고 전단은 콩기름 잉크 1회용 용기는 옥수수 포장재

녹색매장

롯데백화점 본점(서울 소공동) 8층의 에코숍(Eco-shop)은 국내 최초의 친환경 상품 테마매장이다. 롯데백화점과 환경재단이 함께 운영하며 수익금은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잃은 멸종위기동물을 보호하는 사업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캠페인에 사용된다. 지난해까지 1억6백37만원을 기부해 친환경 소비가 환경운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테리어에도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숯과 재활용 자재를 사용한 에코숍에서는 친환경 소재와 공정을 통해 만든 의류, 완구, 문구,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다. 20가지 나무를 재료로 사용해 각각의 나무가 가진 색과 결을 살린 블록 장난감은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다. 김정애 숍 매니저는 "색소나 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삶아서 손으로 깎고 다듬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블록을 입에 넣어도 해가 없고 아토피 피부염도 유발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자연 그대로의 새 소리를 담은 새 인형도 찾는 사람이 많다. 또 콩섬유로 만든 아기옷과 무염색, 무표백, 무형광의 면 소재 친환경 의류는 어린 아이를 둔 주부들에게 인기다. 신문지를 재생해서 만든 독특한 느낌을 주는 연필, 폐타이어로 만든 마우스패드, 소파 자투리 가죽을 재활용한 동전지갑, 주스팩으로 표지를 만들고 재생용지를 활용한 공책 등이 눈에 띈다.

에코숍의 상품들은 디자인과 품질 면에서도 뛰어나다. 별도의 품질선정위원회를 두고 전 세계 친환경 상품 중에 디자인이 우수하고 품질이 뛰어난 상품을 골라서 판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이 좀 비싸도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다. 김정애 숍 매니저는 하루에 약 2백명 이상이 들르고 지방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귀띔한다.

> 에코숍의 수익금은 전액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잃은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사업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캠페인에 사용된다. 지난해까지 1억637만원을 환경재단에 기부해 친환경 소비가 환경운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에코숍 운영 외에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하고 있다. 유통업계 최초로 광고 전단을 친환경 재생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해 만들고 있고, 식품매장과 푸드코트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용기를 생분해되는 1백 퍼센트 옥수수 전분 포장재로 바꿨다. 또한 서울 노원점, 일산점, 부산 센텀시티점 옥상에 총 6백평 규모의 옥상생태공원을 조성해 직원과 고객들의 휴식공간과 생태체험 현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였다. 특히 노원점에는 업계 최초로 태양열 온수 급탕시설을 설치해 식당가 온수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백화점도 지난해부터 식품매장에서 옥수수로 만든 친환경 포장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또 냉장육에 사용하는 일회용 부직포 배송가방도 냉장쿨러 장바구니로 바꾸었다. 홈플러스는 고효율 조명을 사용하고 일일 에너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탄소발자국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회사 전체의 모든 탄소배출량을 관리하고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쾌적한 녹색매장 만드는 법

1. 냉난방기기별로 에너지 관리 책임자와 목표를 정해 운영한다.
2. 절전형 조명으로 교체한다. 옥외용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면 개당 연간 15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3. 에어커튼 등 에너지절약형 장치를 설치한다.
4. 친환경 상품을 권장한다. 친환경 상품을 사용하면 가정당 연간 3백50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5. 포장재는 줄이고 장바구니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준다. 폐기물 1킬로그램당 약 1백20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6. 전단지 사용을 줄이고 e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홍보한다.
7. 도보나 자전거 이용 고객에게 혜택을 부여한다. 승용차 10킬로미터 이용 시 약 1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8. 주기적인 환기로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한다.

그 식당에 딱 하나 없는 건? 잔반통!

CJ 인천공장 구내식당 환경사랑 캠페인 '잔반 제로'

녹색식당

"어머니의 정성으로 꽁치를 김치에 돌돌 말아 만든 꽁치김치말이입니다." 영양사 이선아(38) 씨는 자율 배식대 옆에 서서 새로운 메뉴를 소개하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눴다.

8월 25일 찾아간 CJ 인천 제1공장 사원식당. 이곳은 위탁급식업체인 CJ프레시웨이(대표이사 이창근)가 운영하는 4백여 개 식당 중 하나로, 2006년 9월부터 실시한 잔반 줄이기 운동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곳이다.

식기 반납대 앞에 서서 잔반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보았다. 놀랍게도 잔반통이 없었다. 식기 반납대는 버리는 음식이 하나도 없이 깔끔했다. 다만, 이날 메뉴의 특성상 생선뼈를 모아두는 곳만 있었다. "항상 이러냐"고 묻자 이 영양사는 "2년 동안 노력한 결과"라며 미소 지었다.

2007년 6월 이 영양사가 이곳에 왔을 때 1인당 평균 잔반량은 1백50그램이었다. CJ프레시웨이가 Lean(낭비요소 제거를 통한 효율 극대화)팀을 구성해 잔반 줄이기를 시작한 초기에 1인당 평균 잔반량이 1백20그램이었던 것에 비하면 평균 이상이었다.

환경사랑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잔반 줄이기를 시작했고, 1년 만인 지난해 6월 5일 마침내 식당에서 잔반통이 사라졌다. 그래프에는 이날 잔반량이 '0'으로 표시됐다.

벌칙 대신 보상… 특별메뉴 제공 등 아이디어 빛나

이 영양사는 "구호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더라"며 그들의 마음을 얻기까지 기울인 노력에 대해 들려주었다. 잔반량을 수치화해 보여주는 것은 물론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생과일 주스 3종 세트, 홍시 등 특별 메뉴를 제공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시행 초기에는 '안티족'도 있었다. 하지만 냉소적이던 사람들까지 점차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잔반은 눈에 띄게 줄었다.

이 영양사는 캠페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일일이 관심을 갖고 마음으로 다가갈 때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영양사는 이벤트 날에는 아오자이를 입은 베트남 처녀가 되기도 하고 백설공주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기드라마 '선덕여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선덕여왕 의상을 입고 '삼더(세 가지를 더 준다)'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 영양사는 이 밖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방에 가스와 물 사용량을 그래프로 만들어 시각화해놓고 있다. 그리고 매일 준비한 음식과 남는 음식의 차(差)도 수치화하고 요일별 이용객 살피기 등 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G

글 · 강선임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잔반 제로인 CJ 인천 제1공장 구내식당. 먹을 만큼만 담고 깨끗하게 먹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맛과 환경 지키는 녹색식당 만들기

1. 계획적인 식재료 구입과 관리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2.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3. 광고판은 과도한 조명을 자제하고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한다. 형광등 1개를 끄면 시간당 약 13.5그램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4. 제철 농산물을 이용한다. 하우스 재배 채소는 노지 재배보다 약 5배 더 에너지가 소비된다.
5. 식재료는 냉장고 보관에 알맞은 양만 구입한다. 냉장고 보관 음식이 10퍼센트 증가하면 전기는 3.6퍼센트 더 소모된다.
6. 보관 중인 식재료 이름을 냉장고 문에 써두고 냉장고 문을 여닫는 횟수를 줄인다.
7. 재료를 씻거나 설거지를 하기 전에 미리 이물질을 제거한다.
8. 음식물 쓰레기는 철저하게 분리 배출한다. 음식 물 쓰레기와 다른 쓰레기를 섞어서 버리면 퇴비나 사료로 이용할 수 없다. 또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쓰레기는 악취를 발생시킨다.





녹색생활 하면 돈이 보여요

친환경적으로 살면
돈이 든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세상은 달라졌다.
에너지를 절약하면 포인트를 쌓아
현금으로 돌려받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돈을 깎아주는 신용카드도 있다.
녹색생활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알아보자.

일러스트 · 채홍석

경기 안산시에 사는 직장인 주부 김영란(38) 씨는 한 달에 한 번 일요일을 냉장고 정리의 날로 삼고 있다. 자투리로 남은 채소는 모아 볶음밥 재료로 쓰기 위해 빼놓고, 대충 뚜껑 덮어 넣어두고 먹던 반찬은 상태를 살펴 그날 저녁에 해결한다. 김 씨가 이렇게 냉장고 정리를 하는 이유는 냉장고 공간을 40퍼센트 정도 비우면 평소 전력 소비의 10퍼센트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하지 않을 때도 습관적으로 플러그를 꽂아두던 TV나 컴퓨터도 멀티탭으로 연결해서 쓰지 않을 때는 아예 스위치를 꺼둔다. 보온기능 때문에 즐겨 쓰던 전기밥솥도 압력밥솥으로 바꿨다.

김 씨가 이렇게 절약 습관을 들인 결과 매달 7만원 이상 나오던 전기요금이 5만원대로 떨어졌다. 김 씨의 전기요금 절약분을 1년간 모으면 24만원이다. 여기에 추가 2만원의 수입이 생긴다. 김 씨가 '탄소포인트제' 회원이기 때문이다.

| 탄소포인트 모아 현금처럼 사용해요 |

김 씨처럼 녹색생활만 꼼꼼히 실천해도 돈을 모을 수 있다. 수돗물, 전기, 가스량을 아끼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저탄소 제품을 구입하면 탄소캐시백 포인트가 쌓인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전기나 수돗물, 가스 등을 절약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그만큼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탄소포인트 제도는 전국 2백32개 시군구 중 88곳에서 시작해 8월 현재 1백45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다.

탄소포인트를 받으려면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 가입 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자체가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홈페이지에 가면 2007~2008년 월별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파악이 가능하다. 과거 2년간 썼던 해당 월평균 사용량보다 적게 쓰면 자동으로 탄소 절감량이 표기되는 시스템이다.

탄소포인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그램 줄일 때마다 1포인트가 적립된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최대 3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전기 사용량을 1킬로와트 줄이면 4백24그램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고, 포인트는 42.4포인트 적립된다. 4인 가정 한 달 평균 전기 소비량은 약 3백50킬로와트다. 10퍼센트(35킬로와트)만 전기 사용을 줄인다면 월 4천4백52원어치의 탄소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수돗물과 도시가스는 1세제곱미터씩 절약하면 각각 3백32그램, 2천7백80그램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33.3포인트와 2백78포인트가 적립된다.

지자체마다 포인트를 주는 방법은 다르다. 인천시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고, 서울 강남구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강남구의 경우 시범운영 6개월 동안 4만5천3백32가구에 약 2억 9천만원에 해당하는 탄소포인트를 지급하기도 했다. 쓰레기봉투나 교통카드, 주차할인권 형태로 주는 곳들도 있다.

요즘엔 탄소포인트와 아파트 관리비를 연계하는 제도도 추진 중이다. 환경부 박광칠 기후변화협력과 사무관은 “발생한 탄소포인트를 아파트 관리비로 대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제작업체와 개발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8월 1일부터는 탄소포인트제와 탄소캐시백의 포인트 통합 사용도 가능해졌다. 탄소캐시백 제도는 지식경제부가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산화탄소 마크가 붙은 저탄소 제품을 구입하거나 저탄소 실천매장을 이용하면 탄소캐시백 포인트를 제공한다.

기존 OK캐시백카드를 이용하거나 탄소캐시백 카드를 만들면 누구나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탄소캐시백 가맹점과 OK캐시백 가맹점(주유소 제외), 코레일 철도 승차권 구매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동아DB

탄소성적 인증상품을 구입하면 탄소캐시백 포인트가 적립된다.

> 탄소캐시백 제도는 소비자들이 이산화탄소 마크가 붙은 저탄소 제품을 구입하거나, 저탄소 실천매장을 이용하면 탄소캐시백 포인트를 제공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탄소캐시백 가맹점과 OK캐시백 가맹점, 코레일 철도 승차권 구매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현재 이마트를 비롯해 유한킴벌리, 삼보컴퓨터, 동서식품, 국민은행 등 14개사가 탄소캐시백에 참여하고 있다.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알아보려면 탄소캐시백 홈페이지(www.co2cashbag.com)를 참조하면 된다. 내가 모은 포인트의 적립 명세 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12년까지 총 5백 개 제품에 탄소성적표지를 부착해 녹색제품에 대한 구입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생산과 유통 분야에서의 녹색활동을 위한 인센티브도 있다. 하이브리드카처럼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하면 자동차 취득·등록세, 개별소비세 등 최대 3백1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

| 녹색금융상품으로 이자 쑥쑥, 기부는 덤 |

‘친환경 녹색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건 예금상품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 예금통장은 우리은행의 ‘자전거 정기예금(1년 만기)’. 8월 24일 출시된 신상품으로 3백만원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리 3.7퍼센트지만 자전거를 이용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하거나 후불제교통카드(우리카드)가 있으면 최고 0.3퍼센트 포인트까지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예금 가입과 동시에 자전거상해보험에도 무료로 가입된다. 지난해 8월 출시 후 꾸준히 판매 중인 ‘저탄소 녹색통장’도 있다.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나 탄소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고객에게 자동화기기 이용과 타



좋은 재료를 쓰는 친환경 상품들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녹색소비와 녹색생활을 하려면 돈이 든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하지만 녹색생활이야말로 녹색성장의 추진동력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퍼지면서 녹색생활을 지원하는 각종 금융 혜택이 잇따르고 있다.

행이체 때의 각종 수수료를 최고 1백 퍼센트 면제해주는 통장이다. 수익금의 50퍼센트를 '맑은 서울 만들기' 사업에 기부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녹색성장예금'은 연 4.4퍼센트의 금리를 준다. 저금리시대에 다른 상품보다 금리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1천만원 이상만 가입할 수 있으며 8월 말까지만 판매한다. 기업은행은 판매금액 1만원당 10원을 1년간 적립해 최대 1억원을 녹색성장 관련 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가입자에게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상품도 있다. 하나은행의 '-0.3도C 대출상품'은 저공해 자동차 보유자, 경차 보유자 등 친환경 생활 고객들에게 금리 감면(최대 0.3퍼센트 포인트) 혜택을 주고 있다.

농협의 '초록세상 적금'은 자전거 이용, 환경단체 활동, 탄소포인트제, 코레일 이용, 친환경 기업 등 저탄소 녹색운동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0.3퍼센트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1년 금리는 3.3퍼센트지만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자동이체 등을 신청하면 최고 0.6퍼센트 포인트까지 금리를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광주은행은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범국민운동인 그린스타트를 후원하기 위한 '그린스타트 예금'을, 대구은행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 고객에게 최고 연 3.8퍼센트의 금리를 주는 '친환경 녹색예금'을 각각 판매 중이다.

보험업계에도 녹색 바람이 불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은행은



동아DB

대중교통 이용자나 자전거족에게 금리를 우대해주는 녹색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삼성화재와 제휴해 개인용 자전거보험인 '녹색자전거보험'을 팔고 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본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사고를 냈을 때도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금융권 최초로 판매하고 있다.

녹색금융상품은 돈 불리기에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다. 세제 혜택까지 덤으로 따라온다. 정부는 8월 25일 발표한 '2009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12년 말까지 3년 이상 가입하는 녹색펀드에 대해 1인당 3백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퍼센트(3백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녹색예금도 1인당 2천만원, 녹색채권은 3천만원 내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할 방침이다.

친환경 물품 할인 혜택 녹색카드도 인기

친환경 카드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가장 최근 선보인 친환경 카드는 농협의 'NH 에코카드'. 버스와 지하철 이용 시 하루 1백원, 철도와 고속버스 이용 시 요금의 5퍼센트를 할인해준다. 농협 판매장과 아름다운 가게 등을 이용할 때는 할인 혜택도 부여해 녹색소비를 지원한다. 또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녹색 공익사업에도 쓴다. 농협 금융마케팅팀 한정실 차장은 "카드 사용액의 0.1퍼센트를 농협 자체 부담으로 에코 기금으로 적립해서 조성된 기금을 친환경 녹색성장 관련 공익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장려에 초점을 맞춘 카드도 나왔다. 기업은행의 '상쾌한 공기 로하스(Lohas)카드'는 2010년 6월 말까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월 20회 한정)하면 1회당 2백원씩 할인해준다. 매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0.3퍼센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데,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20회 이상인 사용자에게는 추가로 0.2퍼센트 포인트를 더해 총 0.5퍼센트의 캐시백을 준다.

외환은행 '넘버엔 이패스(Epass) 카드'도 대중교통 이용 시 회당 1백원, 하루 최대 3회까지 OK캐시백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우리은행의 '우리V카드 지(知)'는 대중교통 결제요금의 5퍼센트를 할인해준다. 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카드로 결제할 때 9백원이므로 1회당 45원씩 할인받는 셈이다. 1개월 할인액은 최고 3천원이다.

좋은 재료를 쓰는 친환경 상품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녹색소비와 녹색생활을 하려면 돈이 든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하지만 녹색생활이야말로 녹색성장의 추진동력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퍼지면서 녹색생활을 지원하는 각종 금융 혜택이 잇따르고 있다. 녹색생활, 이젠 피할 수 없는 대세다. G

글 · 정지연 기자

그린스타트 "온 국민이 시작"

범국민적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인 그린스타트가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래 다채로운 행사와 캠페인으로 저탄소 녹색생활을 강조해온 그린스타트 운동을 살펴봤다.





지난 4월 17일 열린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왼쪽). 행사 중 아이들이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약에 참여하고 있다.

그린스타트(Green Start)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이다. 정부, 경제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총 36개 단체가 힘을 모아 가정, 상업 등 비산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이지혜 주무관은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해 "21세기 녹색시대 구현을 위해 민관이 손잡고 나선 운동으로 저탄소 생활양식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산업 분야에서의 빠른 탄소 저감을 통해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움직임이라는 이야기다.

그린스타트 운동의 주체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지난해 10월 발대식을 통해 출범했다. 같은 해 12월 전국대회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09년 7월 말 현재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2백32개 기초단체 중 1백60개 기초단체가 지역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올해 들어 그린스타트 운동의 행보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지난 3월 시작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명'의 참여자는 7월 말 현재 30만명을 넘어섰다.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하는 선도자이자 녹색생활 교육지도자인 '그린 리더'도 전국에서 3천5백명을 선발했다. 지난 4월에는 전국 77만6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또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온실가스 진단주간 행사 때는 전국의 그린 리더 7백여 명이 전국의 공동주택 및 초중학교 학생 가정 3만6천 가구를 직접 방문해 탄소발자국 계산기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진단하기도 했다.

사이버 그린스타트 운동도 활발하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온라인 실천 서명이 진행 중이며, 탄소발자국 계산기 코너를 만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공동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와 손잡고 '함께하는 CO_2 줄이기'라는 스티커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배포했으며 가정, 직장, 유통매장, 건설현장, 농촌, 운전, 식당, 군부대 등 10개 분야를 선정하고 각각의 녹색생활 실천수칙을 제시했다.

오는 11월에는 제2회 그린스타트 전국대회가 열린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연내에 최소 2백 개 기초단체 네트워크 구축과 1백만명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G

글 · 정지연 기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02-358-2284, www.greenstart.kr

산림청, 녹색성장 우수 아이디어 채택

산림청은 지난 7월 '녹색성장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다. 접수된 총 1백15건 중 6건이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됐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개념 바이오 순환림 조성'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황효태 씨 외 2명이 우수상을, '산림정보 이용을 위한 자원특성별 안내지도 제작' 아이디어를 낸 권혁기 씨 외 2명이 아이디어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각각 상장과 50만원(우수상), 30만원(아이디어상)의 상금을 받았다.

산림청은 해당 아이디어를 산림 분야 녹색성장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산림청 이창재 산림정책과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찬우(왼쪽) · 김태균 씨는 4대강 캐릭터가 그려진 녹색생활 실천 머그컵을 내보이며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이자고 호소했다.

'두시탈출 컬투쇼' 녹색생활 공개방송

"컬투가 나섰으니 이제 지구는 안심인 거~죠"

인기 개그 듀오 '컬투'의 멤버 정찬우 · 김태균 씨가 녹색생활 확산에 앞장선다.
평소 에너지 절약과 잔반 줄이기를 실천해온 두 사람은 "자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겠다는 마음으로 다 같이 녹색생활 실천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라디오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인 SBS '두시탈출 컬투쇼'를 진행하고 있는 개그 듀오 '컬투' 멤버 정찬우(41) · 김태균(37) 씨가 녹색생활 전도사로 나섰다. 컬투는 오는 9월 9일 '두시탈출 컬투쇼' 공개 방송에서 녹색생활 홍보행사를 진행한다.

서울 목동 SBS 방송국에서 만난 두 사람은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을 살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는 이번 행사의 취지가 좋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서울 독산동인데 지금처럼 개발이 되기 전이라 집 근처가 산이었어요. 아버지가 1주일에 두세 번은 우릴 산에 데려가곤 하셨지요. 자연은 사람의 심성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는데 사람들은 그동안 자연의 고마움을 모르고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모두들 녹색생활에 동참해 자라나

는 아이들이 깨끗하고 좋은 자연 환경을 누리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정찬우)

정찬우 씨는 열한 살, 여덟 살인 남매를 두고 있고 김태균 씨에겐 네 살짜리 아들이 있다. 두 사람의 각별한 자식 사랑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김태균 씨는 예비아빠 시절 쓴 일기를 〈태교가 즐겁다〉란 책으로 펴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저는 서울 상암동에 살아요. 아이를 위해 산과 공원이 많은 동네가 좋을 것 같아서 그곳에서 살게 됐죠. 동네에 들어서면 확실히 도심지와 공기가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서울 시내에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두 사람에게 나름의 녹색생활 실천법을 묻자 김태균 씨는 "집 베란다에 만든 화단에 고추, 토마토를 '친환경농법'으로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 물 주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고 했다. 정찬우 씨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절전 멀티탭을 사용하고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전원을 끄는 게 습관이 됐다"며 그 이유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잠들기 전 집안 돌아다니며 전원 끄는 것이 습관"

"전자제품의 전원을 꺼도 플러그를 꽂아두면 대기전력 때문에 검침기가 계속 돌아간대요. 대기전력으로 낭비하는 에너지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총소비전력의 11퍼센트 정도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절전 멀티탭을 사용해 대기전력을 차단하면 연간 5천억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샤워 시간을 1분만 줄이면 이산화탄소가 7킬로그램이 줄어든대요. 또 냉장고와 뒷벽 간의 간격을 10센티미터 이상 떼어놓으면 냉각 코일에 바람이 통해 냉각 효율이 좋아지고 에너지 사용량도 줄어든답니다."

정찬우 씨는 평소 집안일에 간섭을 않지만 음식물 낭비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 남편이라고 한다.

"우리의 식당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찬을 손님이 먹을 만큼만 주든가 아니면 각자 자기 먹을 양만 덜어먹는 식으로 뭔가 강제적으로라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남자가 좀스럽다는 말을 들을지 몰라도 저는 늘 집사람에게 음식 많이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는 규칙을 만들고 습관을 들이려면 처음에는 다소 번거로울지 모른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농사짓는 정성과 수고에 대한 보답이자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환경보호운동이라고 정찬우 씨는 강조했다.

"지금 서울 양천구 주민인데요. 양천구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해외에까지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는 거 아세요? 양천구 주민으로서 자랑스럽다니까요.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원이 넘는다는 걸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컬투는 9월 9일 SBS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 공개 방송에서 녹색생활을 주제로 청취자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 "전자제품의 전원을 꺼도 플러그를 꽂아두면
> 대기전력 때문에 검침기가 계속 돌아간대요.
> 대기전력으로 낭비하는 에너지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 총소비전력의 11퍼센트 정도나 된다더군요.
> 절전 멀티탭을 사용해 대기전력을 줄이면
> 연간 5천억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정찬우 씨의 말을 듣고 있던 김태균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녹색성장과 저탄소화는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것인데, 요즘 짓는 건축물은 창문이 위 아래로 조금씩만 열리는 식이 많아 결과적으로 냉방시설과 공기청정기의 가동을 늘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생활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여름철에는 섭씨 26~28도로, 겨울에는 20도 이하로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등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줬다.

"연예인이다 보니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등은 실천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항상 지켜봐주는 방송인으로서 '저 친구들이 앞장선 일이라면 좋은 일일 거야' 하는 믿음으로 녹색생활 실천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데뷔 16년째인 컬투는 개그 공연과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꽃 배달, 편의점, 연예기획사 등의 사업도 펼치고 있다. 재주도 많고 욕심도 많은 이 두 남자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샘솟는 아이디어가 녹색생활을 널리 알리는 데 막강한 힘을 보태주길 기대해본다. G

글 · 오진영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두시 탈출 컬투쇼 SBS파워FM 107.7MHz, 오후 2시~4시

G-코리아 여성 실천단 '위그린(We Green)' 매니저 임그린

"저탄소 녹색성장 주부 하기 나름이죠"

지구를 아껴 쓰자는 녹색성장 운동에서는 거창한 구호보다 작고 사소한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 녹색성장의 주력 일꾼들이 주부인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평범한 주부에서 G-Korea의 녹색생활 서포터 '위그린'의 매니저가 된 임그린 씨를 만나 녹색 실천에 대해 들었다.


정경택 기자

임그린 씨는 아토피 증세를 보이는 둘째 아이를 기르며 환경과 녹색 실천에 대해 본격적인 고민을 하게 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에는 빠져서는 안될 동반자가 있다. 살림을 책임지는 여성들이다. 하나뿐인 삶의 터전인 지구를 아껴 쓰려면 살림을 꾸려가는 주부의 손끝에 녹색습관이 붙어야 한다. 환경을 생각하는 성장이라는 거창한 청사진의 성패가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 달려 있는 셈이다.

여성부가 여러 여성단체들과 함께 추진하는 'G-코리아'는 이처럼 가정과 일상에서부터 환경을 지키는 생각과 행동이 뿌리내리도록 하자는 녹색생활 실천운동이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위그린(We Green)'이라는 이름의 여성 실천단을 꾸리고, 운동을 이끌 이들로 위그린 매니저를 내세웠다. 기독교 계열 가정 상담 및 교육 기관인 사단법인 다세움에서 일하는 임그린 씨는 여성부가 전국적으로 선발한 1백여 명의 위그린 매니저 중 한 명이다.

"지난 7월 하순에 매니저들을 상대로 첫 교육이 있었죠. 제가 '위그린 매니저 임그린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했더니 많은 참석자들이 일제히 제 이름을 놓고 한 마디씩 덕담을 하더군요."

매니저 선발을 위한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임 씨는 이름만큼이나 인상적인 기획서로 시선을 끌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다세움의 영·유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토들러 스쿨'과 위그린 사업을 연계한 것.

위그린 매니저 녹색생활 문화의 주역

"토들러 스쿨에는 영·유아와 엄마가 함께 참석해요. 아이와 엄마 모두에게 환경사랑 정신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장(場)인 셈이죠. 아가들한테 무슨 환경교육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배운 지구 사랑일수록 아이들의 무의식에 더 오래 남지 않겠어요?"

임 씨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연보호 활동을 겸한 나들이, 유기농 식재료를 이용한 간식 만들기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쓰지 않는 전원 끄기, 물 아껴 쓰기 등 작은 실천 과제들도 하나씩 가르쳐 볼 요량이다. 미술활동 재료로 재활용품을 사용하고 물감을 전부 무독성으로 바꾼 것도 환경을 생각하는 정신에서 비롯됐다. 아이들과 함께 만든 친환경 간식을 이웃 노인정 등에 나눠주는 등 궁극적으로는 녹색생활 운동을 지역 전체로 확

산시키는 게 목표다.

위그린 매니저들은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저마다 특색 있는 활동을 통해 녹색생활문화 바람을 일으키는 주역들이다. 이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포진한 위그린 서포터들은 가정, 학교, 여성단체 등에서 녹색생활 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활동 회원들이다. 현재 위그린 서포터의 수는 전국적으로 10만명을 헤아린다. 서포터들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일은 매니저의 몫이다. 임 씨 역시 30명의 서포터를 모집해 8월 초에 첫 교육시간을 가졌다.

'7대 약속' 실천으로 주부 환경지킴이

"위그린 매니저에 지원하면서 사업 내용을 훑어봤는데 주부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듯했어요. 에너지를 아껴라, 세제를 줄여라, 환경을 생각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하는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잖아요.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습관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이죠. 위그린의 실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7대 약속'에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실천 과제들이 빠짐없이 망라돼 있어요.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어떤 주부라도 환경지킴이로 만들어줄 수 있는 손쉽고도 유익한 내용이지요."

위그린 7대 약속은 △친환경 제품 구입 △물 아껴 쓰기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기 사용량 줄이기 △정시 퇴근제 실천 등이다. 각각의 약속마다 재활용 및 탄소 마크가 붙은 제품 사용하기, 우리 농산물 직거래에 앞장서기, 샤워시간 1분 줄이기, 달마다 수도 사용량 고지서 비교하기, 여름엔 쿨비즈(Cool Biz) 정장 입고 겨울엔 내복 입기, 개인컵 사용하기, 출발 전 행선지 미리 파악하기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돼 있다.

"서포터를 모아 보니 역시 나이 든 분들의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없이 살던 시절을 겪으며 자원 절약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집에서 실천을 하든 말든 그저 주부들의 손에 맡겨졌던 녹색생활을 캠페인으로 조직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커다란 힘으로 모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위그린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겠죠?"

임 씨 역시 에너지 절약에 철두철미했던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어지간한 추위에는 난방을 하지 않는 내복 애용자인 부친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량기가 고장 난 게 아니냐며 점검을 나왔을 정도였다고 한다. 부모에게서 배운 아껴 쓰기 정신은 미국 대학에 유학하던 시절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과 만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우리보다 탄소 배출이며 온난화 문제를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였어요. 온난화 관련 회의라도 열릴라치면 참석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이슈가 되곤 했죠."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칫 흐릿해질 수도 있었던 녹색생활에 대한 임씨의 관심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자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다. 둘째 아이가 아토피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임 씨는 식자재를 유기농으로 바꾸고 주거환경을 고민하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환경이란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저탄소 성장, 대체에너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개발 등 일상과는 멀어 보이던 거창한 주제들이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결국 개개인의 삶과 뗄 수 없이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집에서 실천을 하든 말든 그저 주부들의 손에 맡겨졌던 녹색생활을 캠페인으로 조직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커다란 힘으로 모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위그린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이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주부들이 환경을 아끼고 지구를 살리는 열성 서포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G

글 · 손정숙 객원기자

동아DB





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토들러 스쿨'의 활동에 환경 나들이와 유기농 간식 만들기 등 녹색사업을 접목할 계획이다.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그린 디자이너 이경재

결혼식도 이제 친환경으로 맞춤하세요

갑비싼 웨딩드레스, 예식장을 꾸민 조명과 꽃들…. 결혼식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결혼식은 평균 14.5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친환경 결혼식 문화를 선도하는 그린 디자이너 이경재 씨를 만났다.

화려한 조명 대신 은은한 촛불이 켜져 있어 결혼식장 분위기가 한결 엄숙하고 아늑하다. 또한 대형 화환이나 꽃 장식 대신 아담한 화분이 예쁘게 늘어서 있다. 이 화분들은 하객들이 기념품처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부 부케는 뿌리가 살아 있는 꽃으로 만들어 결혼식 후에 다시 심을 수 있다. 신랑 턱시도와 신부 드레스는 옥수수 전분 섬유와 유기농 면으로 만든 것이다. 청첩장 역시 재생종이와 콩기름을 사용했는데, 사진을 넣는 액자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린 디자이너 이경재(30) 씨의 손길을 거친 새로운 결혼식 풍경이다. 예식 장소부터 신혼여행까지 결혼 본래의 의미를 살리면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그의 생각이 묻어 있다. '에코 웨딩'을 통해 녹색가정을 이루려는 예비부부들이 알음알음 그를 찾아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5쌍이 이렇게 친환경 결혼식을 올렸다.

"돈도 많이 들고, 이것저것 낭비만 되는 결혼식 문화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세대 예비부부들이 많이 찾아와요. 모두를 위한 친환경 결혼식을 하는 게 특별한 날을 더욱 뜻깊게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 씨에게는 친환경 웨딩드레스만 맞춰도 되고, 결혼식 전 과정을 상의해도 된다. 고객이 원하는 게 있으면 수용하되 전체적으로 허황하지 않은 결혼식을 지향한다.

"예비부부들에게 결혼식에서 불필요한 절차는 없애자고 제안해요. 하나라도 절차를 줄이면 환경오염도 막고, 돈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제 손을 거친 부부들은 대부분 웨딩촬영도 하지 않아요. 대신 웨딩드레스를 조금 일찍 찾아가 친구끼리 모여 재미있게 기념촬영하는 경우가 많죠."

"친환경 결혼식… 녹색가정 첫걸음 되길"

패션디자이너인 이 씨가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2005년 한 연예인이 결혼식에서 입은 수천만 원대 웨딩드레스가 한 주 내내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는 한두 시간 입고 마는 웨딩드레스에 대한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을 보며 옳은 결혼식이 무엇이고 거기에는 어떤 드레스가 어울릴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우선 생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로 옷을 만들고, 결혼식 후에도 일상복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끔 새로운 실험을 했다.

"기존 웨딩드레스는 석유계 폴리원단을 사용하는데 표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증가시켜요. 그에 반해 친환경 드레스와 수트, 넥타이는 옥수수 전분, 쐐기풀, 유기농 면, 한지 등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 환경오염을 막죠. 드레스의 경우 예식이 끝난 후 조금만 수선을 하면 원피스나 바지 등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어 경제적이에요."

2005년 11월 우리나라 최초로 친환경 드레스를 전시한 후 그에게 드레스를 맞추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결혼식 자체를 친환경식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는 이들의 청첩장, 부케와 꽃 장식 등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다 아예 친환경 웨딩사업 쪽으로 발을 내디뎠다.

"처음엔 친환경 결혼식 한 건을 준비하는데 두 달이 걸렸어요. 지금은 노하우가 생겨 기간이 좀 줄었죠. 친환경 드레스를 위한 원단을 제작하거나 뿌리가 살아 있는 부케를 만드는 일 등은 예전엔 생소한 일이라 쉽지 않았는데 이젠 직원들이 각자 맡은 파트에서 척척 준비해요."

친환경 야외 식장을 잡아주고, 신혼여행 코스도 추천해준다. 이 씨는 지난 6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난 한 부부를 떠올렸다. 그들이 원하는 신혼여행 콘셉트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여행이었다. 이들 부부는 4박5일간의 신혼여행 내내 제주도에 사는 예술인과 올레길을 걸으며 예술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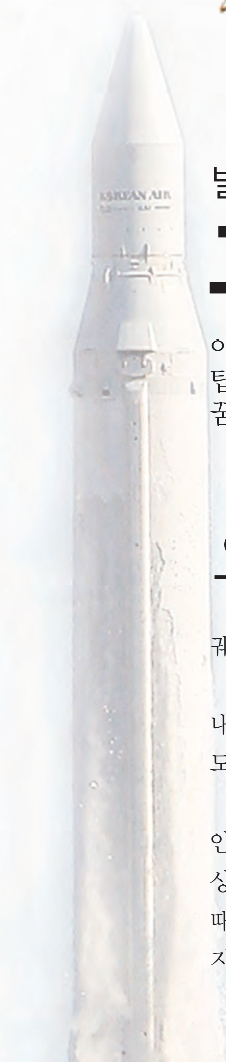


친환경 결혼식 현장. 신부는 뿌리가 살아 있는 부케(왼쪽)를 들고, 식장에는 화환 대신 화분(오른쪽)이 놓여 식이 끝나면 하객들이 선물로 가져간다.

이 씨는 결혼식의 가장 큰 환경오염 주범은 음식물 쓰레기라고 했다. 신랑 신부가 아는 손님보다 부모 쪽으로 온 하객들로 넘쳐나는 혼주문화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여기저기 뿌린 축의금을 자녀 결혼을 통해 거둬들이려는 결혼문화가 바뀌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하객 수를 줄일 수 없는 대신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유기농 야채로 만든 비빔밥 뷔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현재 사회적 기업 '오르그닷' 이사를 맡아 친환경 결혼식과 친환경 병원복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친환경 결혼식을 맡아 기획하면서 녹색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패션 전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다. 최근 생활패션과 관련한 전시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10월 4일까지 경기도미술관에서 열리는 '패션의 윤리학-착하게 입자'에서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별한 날을 위해 친환경 결혼식을 치렀다는 데서 더 나아가 녹색가정을 꾸리는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그린 디자이너로서 최선을 다해 환경오염을 막고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에코패션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G

글 · 김희연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발사는 성공… 목표궤도 진입은 실패

그래도 우리는 우주로 간다

아쉬운 절반의 성공이었다. 8월 25일 오후 5시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는 성공적으로 발사됐지만 탑재한 위성을 예정된 지구 공전궤도에 진입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시도가 초석이 되어 항공우주강국의 꿈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온 국민은 염원하고 있다.

우주강국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난했다. 우리 땅에서 쏘아올린 우리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는 성공적으로 발사됐지만 탑재한 위성이 궤도 진입에 실패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나로호는 8월 25일 오후 5시 나로우주센터에서 힘찬 굉음을 내며 이륙했다. 1단계 로켓과 2단계 로켓의 분리, 위성의 분리도 각각 예정된 시각과 고도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탑재한 과학기술위성 2호를 예정된 지구 공전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위성 보호 덮개(페어링) 분리에 이상이 생기며 위성이 궤도로 진입하기 위한 속도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구 공전궤도 안착에 실패한 과학기술위성 2호는 지구로 추락하면서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세계에서 10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 국가가 된다는 꿈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스페이스 클럽은 자국 영토에서 발사한 인공위성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국가를 뜻한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8월 25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상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며 "7전8기가 안 되면 8전9기로 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우주강국의 꿈을 꼭 이뤄야 한다. 이번 시도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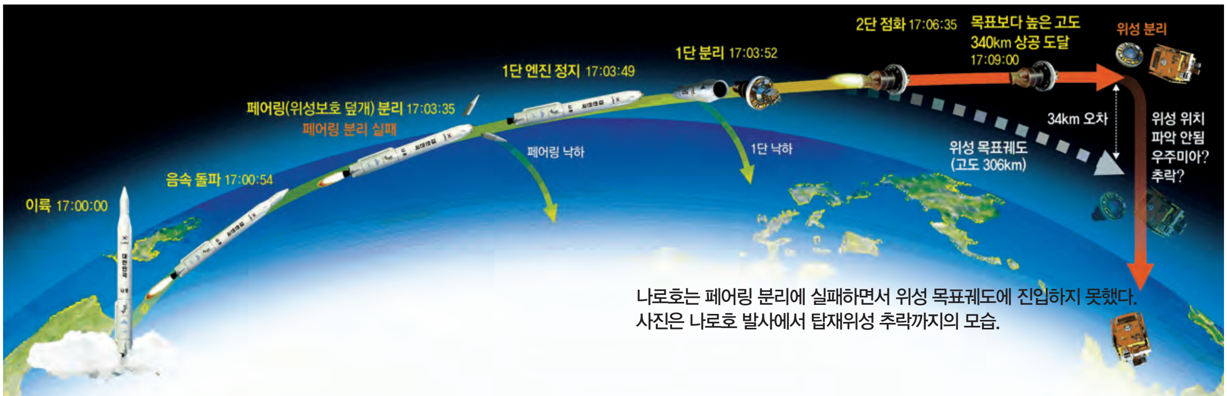
독자 개발 2단 로켓 작동 성공 큰 수확

또한 다음 날인 8월 26일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발전하는 나라"라면서 "첫 위성이 반 정도 성공한 것도 길게 보면 긍



연합

이명박 대통령이 8월 28일 오전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나로호는 페어링 분리에 실패하면서 위성 목표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
사진은 나로호 발사에서 탑재위성 추락까지의 모습.

동아DB

정적인 측면도 있다. 위성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실망하지 않고 더 힘을 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공우주 전문가들은 "나로호 발사가 미완의 성공으로 끝났지만 이를 통해 큰 자산을 축적하는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로켓 발사 기술은 발사대, 발사체, 탑재체(인공위성)의 세 요소로 이뤄지는데, 이번 발사를 통해 이 세 요소의 시스템 통합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권세진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인공위성을 정상궤도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발사체를 개발하고 모든 발사 프로세스를 운용해봄으로써 많은 소득을 얻었다. 비록 1백 퍼센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99퍼센트까지는 근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개발비용 5천억원이 투입된 나로호를 한국 최초의 발사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우주발사체에서 가장 중요한 1단 로켓을 러시아에서 수입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나로호 제작을 총괄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자동차나 컴퓨터의 부품 모두가 국산이 아니지만 당당히 우리 제품이라고 말하지 않는가"라며 "나로호도 그렇게 봐달라"고 말했다.

내년 5월 2차 발사 예정… 우주 수송산업 발판 마련

실제로 국내 노트북 컴퓨터는 미국 인텔의 중앙처리장치(CPU), 대만의 그래픽카드 등을 사용하지만 미국산이나 대만제품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도 나로호의 국적을 한국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 나로호의 국적 논쟁에서 핵심 사안은 부품을 가져다 완제품을 만들지라도 완제품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가 하단을 수입해 자체 개발한 상단과 조립한 후에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 각각의 부품을 가져다가 완성품을 만들지라도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단(2단 로켓)이 성공적으로 작동됐다는 것도 큰 수확이다. 5년 동안의 실험과 연구를 거쳐 만들어진 2단 로켓 엔진 킥모터(KM)는 나로호에 처음으로 장착됐다. 2단 로켓은 발사 후 1단 엔진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된 뒤 점화, 위성을 우주로 들어올리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

탁민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이번 발사가 오히려 자체 개발한 2단 로켓을 검증할 기회가 됐다"며 "로켓을 처음 개발할 때는 실패나 성공보다는 원하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나로호 1차 발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것과 똑같은 나로호를 다시 제작해 내년 5월경 2차 발사를 하기로 돼 있다. 이번 발사의 실패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면 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인공위성을 정상궤도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발사체를 개발하고 모든 발사 프로세스를 운용해봄으로써 많은 소득을 얻었다. 비록 100%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99%까지는 근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두 차례 발사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1단 로켓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나로2호(KSLV-II)를 발사할 계획이다.

2018년의 발사까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띄우는 인공위성은 물론 해외의 인공위성까지 수주해 발사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국내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호를 발사한 연구원들이 설립한 민간 위성업체 쎄트렉아이는 해외 인공위성을 두 번이나 수주해 성공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렸다. 여기에 인공위성을 우주에 운반하는 발사체까지 한국이 개발한다면 우주는 이제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우주 수송산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우주왕복선이나 달 탐사 같은 것만 떠오르면 우주산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생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우주산업도 다양해졌다. 무게 2백 킬로그램의 소형 인공위성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소형 인공위성 시장이 커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발사체 산업도 육성된다.

이미 인공위성은 강대국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중동국가들,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인공

위성 보유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인공위성은 소형이라도 대당 가격이 2백억원이 넘는다. 이를 제작해 판매할 수 있는 국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나로호는 앞으로 우리에게 우주산업이라는 새로운 먹을거리를 가져다줄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나로호는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세대에게 큰 도전을 줄 것이다. 자신의 적성과 사회적 공헌보다는 수입을 먼저 선택하는 현 세태의 풍조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존자원이 없기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수종산업을 찾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도전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1단 로켓 자체 개발 · 전문인력 양성 등 과제

쎄트렉아이의 박성동 사장은 대학 시절 인공위성 제작을 공부하는 유학생을 선발한다는 학교 게시판을 보고 지원했다. 당시로서는 생소한 인공위성 제작이 가능한지는 물론 귀국해서 실력을 펼칠 수 있는지 등을 걱정했다면 절대 감행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박 사장을 비롯한 젊은 KAIST 영재들이 도전했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인공위성 개발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했으며 지금은 수출까지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항공우주산업의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1단 로켓의 자체 개발이다. 나로호의 핵심인 1단 로켓은 러시아 기술에 의존했다. 특히 자력 발사체 개발의 핵심인 액체엔진 분야의 기술은 선진국 기술의 60퍼센트 수준이다.

턱없이 부족한 전문인력 육성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인력은 6백90명으로 가장 최근에 자력으로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린 인도와 비교하면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주개발 예산 역시 2008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7분의 1, 미국의 70분의 1에 그친다. 정부는 2016년까지 총 3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력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는 2010년 2차 나로호 발사를 끝으로 2018년까지 발사계획이 예정된 게 없다. 8년간 일감이 없다. 이 기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나로호 발사로 국민들의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은 고취됐지만 후속 프로그램이 없으면 황량한 우주센터가 되는 것이다.

우주센터와 발사체를 대국민 교육장으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제는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나로우주센터에 가려면 여수공항에 내려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이동해야 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당일로 다녀오기 어렵다. 나로우주센터와 인근의 순천 갈대밭 등을 묶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중앙부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나로우주센터와 나로호를 총괄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관리 및 경영 능력도 높여야 한다. 단순한 연구원이 아닌 수천억원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경영해야 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 더욱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호의 수차례 연기 과정에서 행정력 부재를 보였다.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나로호 발사와 관련한 중요 결정이 러시아와 팩스 한 장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연구 능력에 행정력을 겸비해야 할 단계가 온 것이다. G

글 · 최호열 기자, 조호진(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동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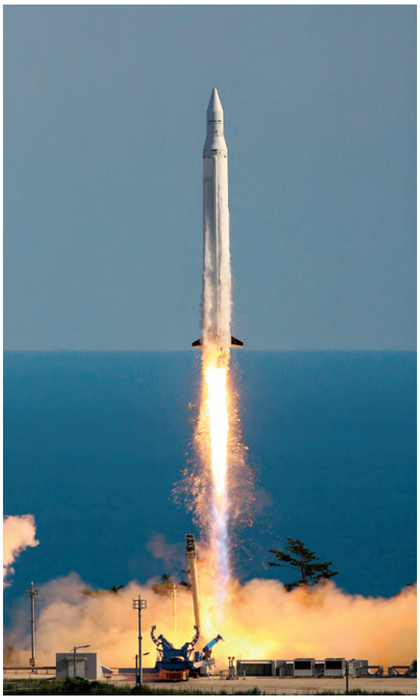
나로우주센터에 모인 관람객들이 나로호의 발사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우주개발 도전사

92년 우리별 1호 시초… 무궁화·아리랑 잇따라

우리의 우주개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같은 우주강국이 1970년대 이전부터 우주개발을 시작한 것에 비하면 후발주자다. 그럼에도 최근의 발전 속도는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도전의 시작은 1992년 우리별1호 발사다. 한국 최초의 위성인 우리별1호는 그해 8월 남미 프랑스령 쿠루우주센터에서 아리안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올라갔다. 3개월 뒤 우리별2호가 개발되기 시작됐고 이듬해 9월 발사됐다. 1995년부터는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용 우리별3호를 독자 설계해 개발했고 4년 뒤 성공적으로 지구궤도에 진입시켰다. 이후 우리별4호인 과학기술위성1호를 개발해 발사했고 지구 및 대기 복사에너지를 측정하는 과학기술위성2호를 개발해 나로호에 실어 발사했다.



동아DB

나로호가 힘찬 굉음을 내며 날아오르고 있다.

한국 최초의 통신위성인 무궁화1호는 1995년 8월 발사했다. 무궁화1호가 예정된 궤도에 오르지 못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듬해 무궁화2호를 쏘아 올렸다. 이때부터 화상회의, 초고속 데이터 전송 등이 가능해졌다. 1999년 9월에는 무궁화3호를 발사했다. 4개월 뒤에는 한반도 및 해양 관측, 과학실험을 하는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1호가 우주로 향했다.

달 탐사선 보내는 한국형 발사체 꿈꾸며

2006년 7월에는 1호 때보다 해상도가 더 좋은 카메라가 장착된 아리랑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1미터급 해상도로 지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됐다. 1개월 뒤에는 최초의 민군 복합위성인 무궁화5호를 발사했다. 한반도는 물론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등에까지 고속 데이터 통신과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 군 통신에 쓰이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했다. 이소연 박사가 국제우주정거장(ISS)을 방문해 9박10일간 18가지 과학실험을 했다.

위성을 우주로 실어 나르는 데 필요한 로켓이 우주발사체다.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가능성은 1993년부터 싹트기 시작됐다. 당시 발사된 로켓 KSR-I은 위성을 실을 수 없고 액체연료 대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초보 수준이었다. 우주발사체에는 한번 불붙으면 끝까지 타버리는 고체연료 대신 분사량을 조절해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액체연료를 주로 쓴다.

1단형 고체 로켓인 KSR-I은 우리가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과학관측 로켓이다. KSR-I을 개량한 2단형 고체 로켓인 KSR-Ⅱ를 1998년 발사한 데 이어 2002년에는 드디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로켓 KSR-Ⅲ를 개발해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위성 발사에 필요한 액체로켓을 쏘아 올렸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위성을 우주로 띄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형 액체 로켓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액체 로켓 기술은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엇비슷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선진국이 기술 이전을 꺼리는 분야다. 한국이 우주발사체 나로호를 개발하기 위해 러시아와 손잡았지만 가시적인 기술 이전이 없었던 이유다.

비록 절반의 성공에 그쳤지만 나로호 발사에는 큰 의미가 있다. 위성을 우주에 띄우는 발사체의 설계부터 발사까지 전 과정을 밟으면서 소중한 경험을 쌓고 핵심 노하우를 습득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내년 5월경 한 번 더 발사한다. 2018년에는 나로호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발사체로 쏘아 올릴 계획이다. 한국형 발사체는 나로호 개발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1백 퍼센트 국산 기술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하면 4백50킬로그램급 달 탐사위성을 쏠 수 있고, 발사패드나 로켓을 세우는 장치 같은 발사대 기계장비와 일부 하드웨어를 변형하면 나로우주센터에서도 달 탐사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

2020년쯤에는 우리 손으로 개발한 달 탐사선을 한국형 발사체에 실어 달로 발사하는, 가슴 벅찬 광경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

글 · 이충환(동아사이언스 기자)



자폐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2천 리 길을 완주한 황웅구 씨. 그는 자전거를 타면서 희망을 찾고 이제 꿈을 이뤄가고 있다.

자폐 딛고 자전거 전국일주 '아름다운 청년' 황웅구

"그린물길캠프 따라 장애도 훨훨 날려요"

자폐장애인은 보호자 없이는 하루도 지내기 힘들다. 그런데 세 살 때 자폐 판정을 받은 황웅구 씨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린물길캠프 2천 리 길을 10박 11일 동안 완주하는 기적을 연출했다.

스물세 살 청년 황웅구 씨는 자폐장애를 가지고 있다. 자폐증은 의사소통과 사회적응 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신경발달장애로 아직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자폐장애인은 보호자 없이는 하루도 지내기 힘들다. 그런데 황웅구 씨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린물길캠프 2천 리 길을 완주하는 기적을 연출했다.

그린물길캠프는 8월 5일부터 15일까지 10박11일 동안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등 4대강을 탐방하는, 장장 7백70여 킬로미터(약 1천9백 리)에 이르는 대장정이었다.

웅구 씨는 이번 캠프에서 대학생 99명과 함께 달렸다. 이 캠프에 웅구 씨의 부모는 동행하지 않았다. 모든 문제를 웅구 씨 스스로 해결하며 대장정을 소화했다. 전문가들은 웅구 씨 같은 자폐장애인이 보호자 없이 열흘 넘게 캠프에 참가한다는 것은 자폐의 한계를 완전히 넘은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웅구 씨의 아버지 황금주(58) 씨도 완주한 아들을 서울숲에서 만났을 때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힘들지 않고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자전거를 탔으니 체력적으로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그렇게 오래 떨어져본 적이 없어서 자폐 증세가 심해지지 않을까, 혹시 발작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함께 참여한 친구들이랑 즐겁게 다녀왔다고 하니 감사할 뿐입니다. 특히 웅구 소원이 자전거를 타고 전국일주를 하는 것이었는데 소원을 이뤘다고 좋아해요."

웅구 씨는 이번 캠프를 통해 자전거 전국일주라는 소원을 이뤘다. 그렇지만 웅구 씨에겐 아직도 남아 있는 꿈이 있다. 그것은 자동차 관련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다.

4대강 탐방 자전거 대장정 '그린물길캠프' 무사히 마쳐

"웅구는 자전거를 비롯해 바퀴 달린 것은 모두 좋아합니다. 특히 자동차 마니아예요. 자동차 사진을 보면 어느 회사 어떤 제품인지 알아냅니다. 제가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구입해준 뒤엔 그것을 뜯고 조립하느라 며칠을 씨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젠 자동차를 공부하는 대학에 가겠다며 매일 1시간 이상 영어와 한자를 공부합니다. 웅구가 꿈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엔 이미 이뤄진 것처럼 보여요."

웅구 씨가 자폐 진단을 받은 것은 세 살 때. 웅구 씨의 부모는 치료를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웅구 씨를 데리고 농장이 있는 경기도 용인에서 자폐아 치료 전문기관이 있는 서울 강남까지 매일 통원치료를 했다. 그렇게 3년이 넘도록 노력했지만 의사의 소견은 '치료 불가'였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진다고 아버지 황금주 씨는 회상한다.

"보통 3년 정도 치료하면 차도가 있는데 웅구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실낱같은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나 웅구 스스로 자기 인생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자전거입니다."

자폐장애인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은 상대와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것, 남은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말을 반복한다는 것, 그리고 회전하는 바퀴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 등이다. 웅구 씨 역시 바퀴에 관심이 많았고 여섯 살이 되자 부모에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했다.

"자폐장애아가 뭔가를 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기 힘든 일입니다. 어떤 일에 의욕을 보이는 게 드물기 때문이죠. 그만큼 웅구가 자전거를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웅구 혼자 자전거를 타다가 논바닥에 처박히고 차에 치일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타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렸지만 자전거를 놓지 않더군요."


'그린물길캠프'에서 달리는 황웅구 씨(앞에서 세번째).

그렇게 시작된 웅구 씨의 자전거 여행은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매일 오전 9시쯤 자전거를 끌고 나가 1백 킬로미터 이상 여행한 뒤 오후 6시쯤 집으로 돌아온다. 자폐장애인 웅구 씨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다.

웅구 씨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전거 여행을 시작한 초반에는 아버지가 불안한 마음에 몰래 뒤를 쫓아간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웅구 씨는 빈 물병을 들고 주유소에 들어가 물을 얻어 마시고, 길가 가게에서 음료수를 사먹고 있었다. 모르는 이와는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게 어려웠던 아들의 변한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숨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웅구의 변한 모습을 보며 크게 깨달았습니다. 제 스스로 웅구의 능력에 한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자전거를 탄 뒤로 주변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 먹을 줄도 알게 됐고, 서울에서 공부하는 동생들이 내려오면 자리를 펴주는 등 형 노릇도 톡톡히 합니다. 게다가 이번 그린물길캠프에 참가한 뒤엔 더 밝고 명랑해졌어요."

흔히 자폐아들은 꿈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웅구 씨와 그의 부모는 "그건 당신들 생각일 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자전거로 전국 4대강을 달리며 꿈을 갖게 된 '자전거 청년' 황웅구 씨. 그의 질주는 끝이 없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신우창 부소장은 막걸리의 고급화,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신우창 국순당연구소 부소장의 막걸리 예찬

“유산균·식이섬유 다 막걸리 안에 있다”

쌀 소비 촉진 정책과 맞물려 요즘 막걸리가 큰 인기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막걸리 칵테일이 나왔을 정도다. 11년째 막걸리를 연구해온 신우창 국순당연구소 부소장을 만나 막걸리의 맛과 효능에 대해 들었다.

“대학 다닐 때 막걸리를 많이 마셨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막걸리를 연구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걸리 없는 제 삶을 상상할 수 없죠.”

분자유전학을 전공한 국순당연구소 부소장 신우창(41) 박사는 전공을 살려 유전학 관련 일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우연히 국순당 배상면 회장의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배 회장의 열정에 반해 1999년 국순당에 입사하면서 막걸리와 인연을 맺었다.

“우리나라에 막걸리 제조업체가 7백여 곳에 달해요. 지역에 따라 그 맛이 모두 다르죠. 그래서 개발 초기에는 하루에 수십 종류의 막걸리를 마셨어요.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 일이었던 셈이죠.”

그때부터 신 박사는 막걸리 예찬론자가 됐다. 그는 막걸리가 좋은 이유로 몸에 이롭다는 사실을 먼저 든다. 막걸리 발효과정에서 생성되는 효모와 유산균 같은 미생물이 항암작용을 하는 것은 물론, 노화방지 효과까지 있다는 것이다. 막걸리 속의 비소화성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 막걸리의 다이어트 효과가 알려지면서 이웃나라 일본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 막걸리의 인기는 대단하다.

지난 11년 동안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를 연구해온 신 박사는 생막걸리의 탄산압을 유지하는 특허기술을 개발한 주역이기도 하다. 막걸리는 원래 생막걸리가 기본이라고 한다. 살균 막걸리에 비해 생막걸리는 효모와 유산균이 살아 있어 맛도 영양도 월등하다. 다만 냉장을 해도 유통기한이 보통 7~10일에 그친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그는 탄산압을 유지하는 방법을 개발해 생막걸리의 유통기한을 한 달 정도로 늘렸다.

신 박사는 무엇보다 막걸리는 한국인의 유전자에 각인된 술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소주라고 말하죠. 저는 이 사실이 참 안타까워요. 물론 소주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이죠. 하지만 6백 년 된 소주보다는 5천 년 전통을 지닌 막걸리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술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DNA에는 5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막걸리의 맛에 대한 기억이 들어 있고, 그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막걸리를 한 번만 마셔도 금방 익숙해지죠."

"머리 아픈 막걸리" 옛말… 만찬주로도 좋아

간혹 막걸리를 마시면 다음 날 머리가 아프다는 등 소위 '뒤끝이 안 좋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대해 신 박사는 막걸리에 대한 오해라며 안타까워한다.

"1975년 막걸리의 인기는 최고였죠. 전체 주류시장의 60~70퍼센트가 막걸리였고, 전국적으로 1백40만 킬로리터가 생산됐으니까요. 그 시절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막걸리 제조업자들이 조기 숙성을 시키느라 카바이드 같은 화학물질을 공공연히 사용했어요. 그 때문에 막걸리를 마시면 다음 날 머리가 아프다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죠. 막걸리 자체가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요즘 만들어지는 막걸리는 그런 일이 절대 없죠."

1975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막걸리는 1980년대 들어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런 막걸리가 부활하고 있다. 국순당만 해도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이상 성장했을 정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빼놓을 수 없을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의 파고에 맞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방법의 하나로 쌀 가공식품 활성화를 누누이 강조해왔고, 그중 하나가 쌀막걸리다. 심지어 내년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때의 만찬주로 쌀막걸리를 제안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막걸리 바람이 다시 부니 기분 좋죠. 좀 더 욕심을 내본다면 소비자들이 막걸리의 참 가치를 인정해줬으면 합니다. 현재 7백50밀리리터 용량의 막걸리가 보통 1천원 정도 합니다. 생수보다도 싸죠.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안 사먹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좋은 재료를 쓰거나 좋은 패키지를 사용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죠. 제조업자들도 품질 관리와 개발에 노력하겠지만, 소비자들도 '막걸리=싼 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막걸리의 고급화, 세계화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연구하는 신 박사의 아내는 유전학자다. 얼마 전 그의 아내는 당근 색소를 첨가해 황금쌀을 만들어냈다. 신 박사는 이 황금쌀을 이용해 황금 막걸리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말한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와인이나 일본의 사케처럼 막걸리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주로 만들기 위해 그는 오늘도 막걸리를 마신다.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신우창 부소장이 일러주는

'막걸리 맛있게 마시는 법'



막걸리는 휘휘 저어서 마셔야 제맛이다

간혹 막걸리의 뿌연 고형물을 가라앉혀 말간 액체만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막걸리의 생명을 그냥 버리는 셈이다. 막걸리의 생명인 살아 있는 효모, 유산균, 비소화성 식이섬유 등은 모두 이 고형물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막걸리 색이 희수록 좋다는 건 오해다

색상의 차이는 발효를 위해 넣는 누룩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의 차이일 뿐,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다. 일본식 누룩인 쌀누룩을 사용한 막걸리는 흰색에 가깝고, 전통 누룩인 밀누룩을 사용한 막걸리는 노리끼리한 색을 띤다. 쌀누룩은 깔끔하고 단순한 맛이, 밀누룩은 깊고 풍부한 맛이 특징이다.

살균 막걸리에선 향을, 생막걸리에선 탄산감과 청량감을 느껴본다

살균 막걸리를 마시면서는 향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온도가 조금 높아야 좋다(섭씨 5~10도). 이에 비해 탄산감과 청량감이 느껴지는 생막걸리는 살균 막걸리보다는 온도가 조금 낮아야 좋다(섭씨 0~5도).



한국인 오철호 씨와 필리핀 여성 세실리아 씨가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마련한 알뜰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알뜰한 커플들의 현명한 선택

우리 알뜰 결혼 할까요

8월 22일 토요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립정독도서관에서는 특이한 결혼식이 열렸다.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마련한 이 결혼식에서는 하객들에게서 축의금 대신 진심 어린 축하의 말만을 받았고 화려한 뷔페식 대신 다과를 제공했다.

#1 "저처럼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해외의 처가에서 한 번, 한국에서 다시 한 번, 모두 두 번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저 역시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한국에선 오늘 어른들을 모시고 다시 예식을 올리는 겁니다. 경제적 이유로 걱정했는데 때마침 신부가 공부하는 한국어학원을 통해 '알뜰 결혼식' 소식을 접하고 신청하게 됐어요."– 오철호 · 세실리아 부부

#2 "아내를 만나 아이들 낳고 살며 생계에 바빠서 여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엄마, 아빠 결혼식 사진을 찾을 때마다 아내에게 몹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알뜰 결혼식'에 대해 알게 되면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저희처럼 뒤늦게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들에겐 요란하지 않은 알뜰 결혼식이 부담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남귀 · 임희례 부부

'우리 이제 결혼할까요?' 달콤한 프러포즈처럼 들리겠지만, 이 고백은 건강가정지원센터(서울 종로구청 위탁 운영)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실시하는 알뜰 결혼 프로그램의 제목이다.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열애 중인 청춘남녀들이 결혼식 올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예식장 대여료부터 야외촬영 비용, 피로연에다 예단, 예물, 신혼여행 비용까지 생각하면 결혼식을 치르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적령기의 남녀가 결혼을 미루는 것은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식의 거품을 걷어낸





하객들은 식사 대신 다과로도 충분했다(위). 신부의 머리손질과 메이크업은 미용전문업체가 후원했다.



“알뜰 결혼 원한다면 언제든 지역센터로 연락하세요”

이용권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알뜰 결혼식의 취지와 의의는 무엇인가.

결혼식은 가족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이자 결속력과 연대의식을 다지는 행사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식을 생략한(혹은 생략할 계획인) 부부들은 결혼식을 형식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남남이 가족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중요한 의식으로서 꼭 필요하다. 알뜰 결혼의 의의는 결혼식의 본래 의미를 강조하고 건강한 가족을 이루는 것을 돕는 데 있다.

다문화가정을 이룰 예비부부의 결혼식 주례를 맡은 이유는.

“다문화가정을 이룰 커플에게는 다른 커플들보다 더 많은 안내와 지원이 필요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예비부부들이 새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결혼 후 닥칠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결혼 전 상담부터 결혼식 준비 및 진행, 결혼 후 생활까지 센터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게 됐다.

알뜰 결혼식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가.

이 행사가 아직 정례화되지는 않았지만 상시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커플들이 알뜰 결혼식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알뜰 결혼식을 원한다면 해당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락해 식장 섭외 등 가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알뜰 결혼식 프로그램인 ‘우리 이제 결혼할까요’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다. 프로그램 제목처럼 그동안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경제적 부담 등으로 결혼을 미뤄온 커플들이 더 미루지 않고 부담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그 덕에 8월 22일 세 커플이 각기 오전, 낮, 오후로 나눠 결혼식을 치렀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현영주 총괄팀장은 “오늘 결혼한 세 쌍은 알뜰 결혼 캠페인의 일환으로 본인들에겐 거의 비용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후원했다. 결혼식 장소인 도서관은 서울시립정독도서관이 제공하고, 사진 촬영과 메이크업도 1백 퍼센트 후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축의금 안 받고 다과로 식사 대신… 실속 결혼식 인기

“피로연 대신 준비한 다과상도 재료비 정도만 센터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후원을 받았습니다. 예복과 간단한 예물 역시 센터 측이 제공했습니다. 후원이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알뜰 결혼식의 취지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결혼비용이 제로(0)에 가까워서인지 많은 커플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분들과 상담한 결과 우리 취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적극적인 세 쌍의 결혼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알뜰 결혼식 진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축의금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과 식사 대접 문제였다. 과거 축의금을 계속 내오던 가족들로서는 축의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손해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우리나라 정서상 가족과 친지들을 모신 ‘잔치’에서 변변한 식사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혼 당사자들 대부분이 부담 없고 합리적인 결혼식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어 결혼식에 대한 사회통념이 바뀌어간다면 머잖아 실속 결혼식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현 팀장은 전망했다.

이번 알뜰 결혼식을 마련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목표로 가족교육사업(예비부부에서부터 결혼 이후 부부상담 및 교육, 자녀교육 등)과 가족문화사업(가족문화축제, 가족단위 봉사활동, 가족단위 문화 참여기회 제공 등), 가족상담사업(부부문제 및 부모·자녀문제 상담, 이혼 전후 가족상담, 각종 심리상담 등)을 진행한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경기 등 전국에 지역센터들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G

글·최철호 객원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familynet.or.kr

“두 번 내고… 뭔지 모르고 내고…”

복잡한 과태료·과징금 획기적 개선

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합리화 방안’이 마련됐다.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이상희 팀장에게서 이번 합리화 방안의 취지와 의미를 들었다.

8월 26일 법제처는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 보고했다. 과도한 중복제재를 줄여 서민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은 법제처가 국민들이 불편을 느낄 만한 불필요한 법령을 고쳐나가기 위해 벌여온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주십시오.

현행 법률에서는 하나의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기에 벌금까지 내도록 하는 등 중복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등은 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부담이 됩니다. 중복제재가 서민경제와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 가운데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특히 눈에 띕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되는 제재 기준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재산 상태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합리화 방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재보다는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등 과태료 부과 체계의 전환도 이뤄지는 것으로 압니다.

현행 법률이 제재를 통한 행정목적 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합리화 방안에서는 사후 이행이 가능한 경미한 의무위반 등에는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우선 부여함으로써 ‘선(先)시정 후(後)제재’로의 전환을 꾀했습니다. 제재를 강화하기보다는 시정 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제재의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집행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최종적으로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합리화 방안에 담긴 개선 내용을 전해주십시오.

한 번 위반한 사람이나 열 번 위반한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을 개선해 위반 횟수 또는 위반 기간 등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태료나 과징금을 많이 내거나 잘못 내서 환급받을 때는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공감 정책의 하나입니다. G

글·구자홍(동아일보 신동아팀 기자)



조영철 기자



동아DB

법제처는 PC방 업주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과징금만 납부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4대강 살리기
제 20 화
글·이연수 그림·여호
두두두두
아이고, 정신없어.
두두두두
물총새
파랑새목 물총새과
학명: Alcedo atthis bengalensis
알세도 아티스 벵갈렌시스
정말 시끄럽긴 하네요.
꼬마물떼새
황새목 물떼새과
학명: Charadrius dubius curonicus
카라드리우스 두비우스 쿠로니쿠스
이 북새통을 떠느라 15조원 넘게 쓴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대요.
그게 웬 예산낭비예요? 무슨 강 준설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쓴대요?
아니,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지난 5년 간 연평균 홍수피해액이 2조7천억원이었대요. 복구비는 4조3천억원, 홍수예방에 5천억원을 썼대요.
헉!
전부 합하면 해마다 평균 7조5천억원이 든 거잖아요. 3년이면 공사비가 빠지는 거죠.
!
그리고 단순히 준설만 하는 게 아니라 수질 관리에 필요한 시설도 확충하고 낡은 제방도 고치고 생태습지도 복원하고 문화유적도 되살리고 워터프런트도 조성하고 저류지도 확보하고 금수강촌 사업도 하고 폐수처리시설도 보강하고….
진짜요? 그 많은 일을 다?
그렇다니까요. 지금 저 사람들은 일회성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시끄러워도 참아야겠네.
그래요. 우리가 참아주자고요.
두두두두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육, 취업, 주거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민생활서비스 클릭! oklife.go.kr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1차 구축사업 완료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1차 구축 사업이 완료됐다. 이로써 여러 기관이 따로 제공하는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한 단계 향상됐다.

맞벌이를 하는 한미경(33) 씨는 요즘 다섯 살짜리 아들을 맡길 곳을 찾기 위해 동네 보육시설을 찾아다니고 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알아보는 게 쉽지 않았다. 게다가 한 씨는 전셋값이 많이 올라 임대아파트 입주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틈틈이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나 서울시 SH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도 만만치 않다. 회사에서 임대아파트 정보를 검색하다 상사에게 들켜 안 좋은 소리를 듣기도 했다.

마음이 바쁘고 피곤한 그에게 직장 동료가 귀가 번쩍 뜨이는 정보를 일러줬다. 지난 1월 개통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보라는 것이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5개년 계획으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생활체육, 문화, 관광, 평생교육 등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8개 항목으로 나눠 운영하는 서비스다. 여러 기관이 분산 제공하는 주민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기관을 직접 찾거나 홈페이지, 관련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했던 불편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제 한 씨는 더 이상 지역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임대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비스 신청에서부터 결과 확인까지 온라인을 통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기관을 별도로 방문할 필요도 없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은 지난 6월 말 2단계 1차 구축사업이 완료돼 서비스가 개선됐다. 이로써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가 20종에서 54종으로 늘어났다.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구직 신청, 직업 상담, 고령자 재취업 프로그램,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정부 양곡 할인, 근로자 장학지원 신청, 근로자 문화예술제, 서울시 보육시설 신청 등이 있다. 새롭게 제공되는 34종의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8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대상을 확대 보완해 오는 2011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역공통 중앙서비스 20종에서 54종으로 확대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 가운데 한 씨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끈 것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이동통신료, TV수신료, 전기료 등의 요금감면 복지서비스다.

그동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요금감면 복지서비스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구비해 일선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개별적으로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최병훈 주무관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은 안내에 그치지 않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이 앞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02-738-5643, www.oklife.go.kr

"수업 후 축구 가슴 설레요"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 활동 지원 '스포츠바우처' 인기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가 시행되고 있다. 위축되기 쉬운 저소득층 아이들이 활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스포츠 복지의 현장을 소개한다.

충남 천안시 백성동의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 4시가 가까워지면 가슴이 설렌다. 지난 4월부터 축구를 공짜로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시 축구센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지난 2월 26일 완공됐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 시설에서 스포츠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매월 30명. 수련관을 운영하는 최순원 씨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보면 대개 수동적이고 말이 없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데, 축구를 배우면서 활동적으로 변한다"며 "아이들이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스포츠바우처는 레저활동을 따로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3월부터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매월 1인당 6만원 이내로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며, 스포츠용품 구입비는 연간 1인 1회 6만5천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각각 국민체육진흥기금이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를 맡아 지원하고 있다.

스포츠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만 7~19세 유소년 및 청소년(2009년 기준으로 1990년 1월 1일 이후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스포츠바우처 이용 신청을 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회원등록 통보를 받으면 된다. 구비 서류는 필요 없고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면 끝이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일주일 이내에 회원등록 통보를 받을 수 있다. 회원으로 등록되면 지자체가 지정한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한다.

7월 31일 현재 올 상반기 스포츠바우처 제도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은 5천9백6명. 당초 계획했던 5천3백18명을 넘어설 정도로 반응이 좋다. 종목별로는 수영장을 선호한 아이들이 43.2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태권도장이 35퍼센트로 그 뒤를 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김영학 주무관은 "스포츠바우처는 저소득층 유소년과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성장기 아이들의 체력을 튼튼히 하고, 정서 순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국민 스포츠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02-3704-9814, http://www.mcst.go.kr



스포츠바우처로 시행되는 체육 종목 중에서 축구가 제일 인기다. 사진은 충남 천안시 백성동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 모습.



청하골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우람한
연산폭포. 폭포수가 만들어내는 굉음과
무지개가 인상적이다.



청하골 초입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보경사의 여러 당우와 오층석탑.

경북 포항 청하골 열두 폭포 5.4km

끝물 더위도 잠시 쉬었다가는 길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도 지났다. 그런데도 늦더위 기세가 좀체 꺾이지 않는다. 아직도 시원한 물가가 생각난다.

경북 포항시 송라면 중산리에 위치한 청하골은 계곡의 청량함이 그리울 때 찾아가기 딱 좋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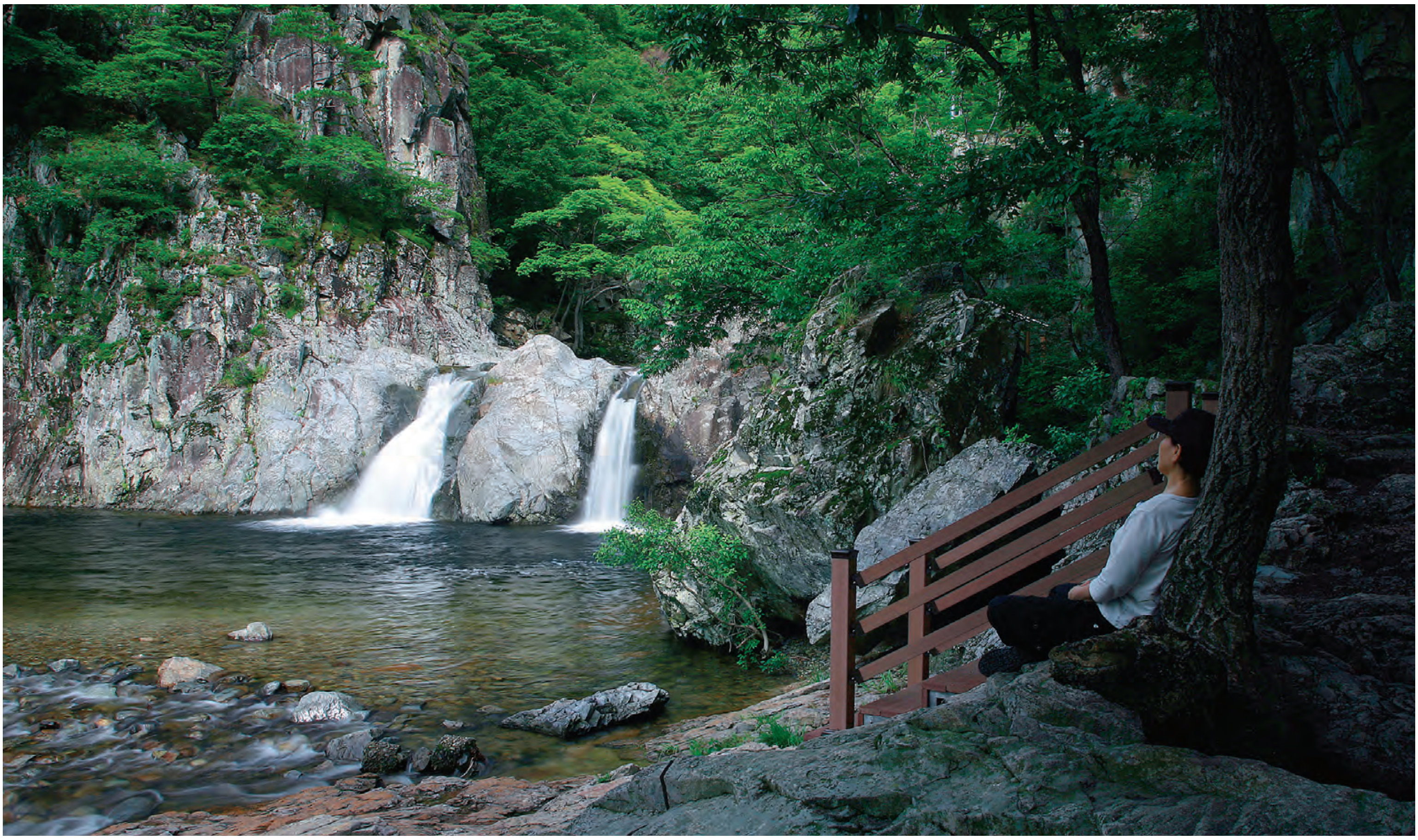
청하골은 향로봉(9백30미터)에서 내연산(7백10미터)을 거쳐 문수산(6백22미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남쪽 자락에 위치한다. 향로봉, 내연산, 문수산을 비롯해 청하골을 반달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삿갓봉(7백18미터), 천령산(7백75미터) 등은 해발고도만 따진다면 그리 높은 산은 아니다.

하지만 동해안 가까이에 솟아올라 있어서 해발고도가 엇비슷한 내륙지방의 산봉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높고 우뚝해 보인다. 그래서인지 청하골의 풍정도 백두대간 산자락의 어느 심산유곡에 못지않게 깊고 그윽하다. 의외로 걷는 길은 수월한 편이다. 등산로의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고 평탄해서 구렁이 담 넘는 듯이 수월하게 오르내릴 수 있다.

청하골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초까지만 해도 행정구역상으로 청하현에 속했던 곳이라 그런 지명이 붙었다. 또한 맨 아래의 상생폭포에서 최상단의 시명폭포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계곡에 모두 12개의 크고 작은 폭포가 줄지어 늘어선 덕택에 '12폭포골'로도 불린다. 이곳처럼 형태와 규모가 저마다 독특한 폭포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은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청하골의 물길을 따라가는 계곡트레킹 코스는 보경사(寶鏡寺)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절은 신라 진평왕 때인 602년에 지명법사가 창건했다는 천년고찰이다. 지명법사가 중국에서 가지고 온 불경과 팔면보경(八面寶鏡)을 연못에 묻고 지은 절집이라 해서 보경사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지금은 대웅전, 적광전, 천왕문, 요사채 등 당우가 여럿이지만 연륜에 비해 규모가 큰 사찰은 아니다.

경내의 문화재도 고려 고종 때의 고승인 원진국사의 비석(보물 제252호)과 부도(보물 제430호)를 제외하면 딱히 내세울 게 없다. 하지만 절집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번잡하거나 호사스럽지 않아서 오며가며 마음 주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게다가 경내와



나무등걸에 편안하게 등을 기댄 채 청하골 제1폭포인 상생폭포를 바라보는 탐방객.

절 주변에는 소나무, 회화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등의 아름드리 노거수가 빼곡해서 삼복의 불볕더위조차도 기를 펴지 못한다.

보경사에서 청하골 일대 여러 산봉우리들의 좌장격인 향로봉까지의 거리는 10킬로미터(편도)쯤 된다. 왕복 6시간 30분이 소요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산행길이다. 하지만 노송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서 한 폭의 진경산수(眞景山水)를 연상케 하는 청하골의 진면목은 보경사에서 연산폭포까지 왕복 5.4킬로미터 구간을 2, 3시간 동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일찍이 조선시대에 중국화의 모방에서 벗어나 진경산수라는 새로운 화풍을 일으킨 겸재 정선도 청하현감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 청하골을 다녀간 뒤 내연삼룡추도(內延三龍湫圖), 내연산폭포도(內延山瀑布圖), 고사의송관란도(高士倚松觀瀾圖) 등의 걸작을 남겼다.

대체로 같은 길을 되돌아오는 일은 지루하고 퍽퍽하다. 하지만 청하골에서는 그런 느낌이 거의 들지 않는다. 오히려 눈으로만 봤던 풍경을 마음으로 느끼는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열두 폭포가 늘어선 청하골에서는 눈보다 마음이 더 즐겁고 상쾌해진다.

보경사 앞 등산로에는 시원한 계류가 쏜살같이 흐르는 수로가 한쪽에 설치돼 있다. 보경사 경내를 가로지르는 이 수로는 절 아래의 너른 들녘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늦더위를 참지 못한 등산객과 아이들은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리고 이 수로에 발을 담그기도 한다. 워낙 물이 차갑고 유속도 빨라서 발등에 전해오는 냉기가 금세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듯 인상을 찌푸리곤 한다.

청하골의 등산로는 소나무, 참나무, 때죽나무, 생강나무, 단풍나무, 서어나무, 박달나무, 물푸레나무 등이 뒤섞인 숲으로 조붓하게 이어진다. 비탈지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나무데크와 계단이 놓여 있어 남녀노소 안심하고 걸을 수 있다. 경사도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완만한 등산로를 20여 분쯤 오르면 청하골의 제1폭포인 상생폭포 앞에 당도한다.

상생폭포는 우람하거나 위압적이지 않다. 두 줄기의 폭포수가 나직한 암벽을 타고 나란히 떨어지는 모양이 단아하기 그지없다. 상생(相生)이라는 그 이름처럼,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편안케 해준다. 하지만 폭포 옆의 기화대(妓花臺)라는 암벽과 폭포수가 떨어지는 기화담은 다소 위압적이다. 특히 끝 모를 심연처럼 검은빛으로 일렁이는 기화담은 약간의 공포감마저 불러일으킨다. 아니나 다를까, 옛날에 어느 풍류객과 함께 상생폭포 위쪽의 바위에 앉아 음주가무를 즐기던 기녀가 술에 취해 떨어져 죽은 뒤로 기화담과 기화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열두 폭포 절경 관음폭포 서면 탄성이 절로 나와요

상생폭포를 지나면 보현폭포, 삼보폭포, 잠룡폭포(보경폭포), 문수폭포(무풍폭포)가 연이어 나타난다. 그중 삼보폭포와 잠룡폭포는 등산로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아주 비좁은 협곡에 위치한 잠룡폭포는 청하골의 여러 폭포들 가운데 가장 순수한 풍모를 자랑한다. 규모로는 연산폭포가 더 크지만, 그 형태와 주변 풍광은 잠룡폭포가 한 수 윗길이다. 이 잠룡폭포는 영화

〈남부군〉에서 지리산 어느 골짜기에 모인 남부군 대원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발가벗고 목욕하는 장면을 촬영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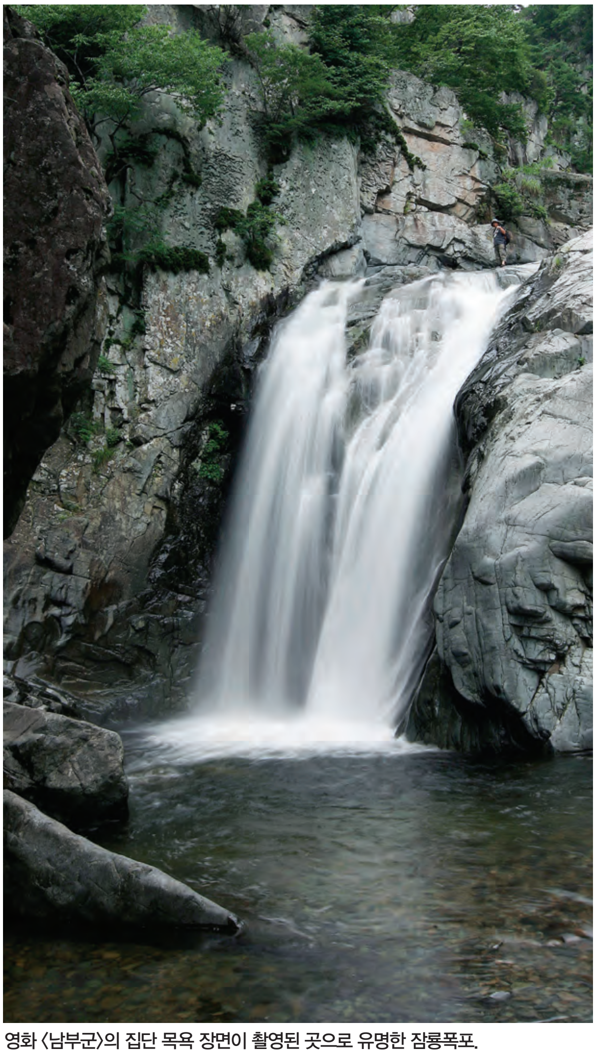
청하골의 열두 폭포 가운데 으뜸가는 승경(勝景)은 관음폭포다. 쌍폭인 관음폭포 주변에는 선일대, 신선대, 관음대, 월영대 등의 천인단애가 장승처럼 둘러쳐져 있다. 그리고 억겁의 세월 동안 쉼 없이 쏟아지는 폭포수가 만들어 놓은 못 옆에는 커다란 관음굴이 뚫려 있다. 이 굴 안쪽으로 들어가면 한쪽 입구를 가린 채 떨어지는 폭포수 줄기를 볼 수 있다.

관음폭포 위에 걸린 구름다리를 건너면 높이 30미터, 길이 40미터에 이르는 연산폭포의 위용이 한눈에 들어온다. 청하골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폭포다. 학소대라는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커다란 물줄기가 무지개와 물보라를 만들어내며 쏟아지는 광경에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제7폭포인 연산폭포 위쪽의 폭포들을 보려면 관음폭포 옆쪽의 벼랑길을 이용해야 한다. 벼랑 위에 올라선 뒤 다시 15분가량 물길을 따라가면 또 하나의 폭포를 만나게 된다. 숨겨져 있어서 '은폭'(隱瀑)이라 불리는 폭포다. 비단 같은 물줄기가 시퍼런 소(沼)로 떨어지는 모습이 정갈하고 기품 있다.

그 위쪽으로도 복호제1폭포, 복호제2폭포, 실폭포, 시명폭포가 이어진다. 그러나 등산로가 험한 데다 여태껏 만난 8개의 폭포만으로도 내연산 청하골의 진경을 두루 섭렵했기에 애써 더 올라갈 필요는 없다. 대체로 같은 길을 되돌아오는 일은 지루하고 퍽퍽하다. 하지만 청하골에서는 그런 느낌이 거의 들지 않는다. 오히려 눈으로만 봤던 풍경을 마음으로 느끼는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열두 폭포가 늘어선 청하골에서는 눈보다 마음이 더 즐겁고 상쾌해진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영화 〈남부군〉의 집단 목욕 장면이 촬영된 곳으로 유명한 잠룡폭포.



여행 정보

숙박 보경사 매표소 앞에 위치한 연산온천파크(054-262-5200)는 비교적 시설도 괜찮고 온천탕과 모텔을 함께 갖춘 숙박업소다. 보경사 입구 도로변에 자리 잡은 보경펜션(054-261-1183)은 깔끔한 목조펜션이다. 이 밖에도 버섯집민박(054-262-9669) 등의 숙박업소가 보경사 근처에 있다.

맛집 보경사 상가지구에는 직접 칼국수를 만들어 파는 음식점들이 여럿 있다. 밀가루와 생콩가루를 적당히 배합한 반죽을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밀대로 밀어 국수를 만드는데, 쫄깃한 면발과 고소하고도 개운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하지만 더위가 완전히 스러지지 않은 요즘에는 새콤하고 시원한 김치말이국수가 더 입맛 당긴다. 집집마다 솜씨와 맛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이북할매식당(054-261-8921), 춘원식당(054-262-1170) 등이 맛집으로 소문나 있다.



이북할매식당의 김치말이국수.

가는 길 익산포항고속도로 포항톨게이트→대련나들목(28번 국도·영덕 방면)→성곡나들목교(7번 국도)→송라면 소재지(보경사 방면)→보경사 주차장

세상의 끝에서 인생을 불태우다



세계의 명작 '세 자매'

일시	9월 4일(금)~13일(일) 화·목요일 오후 7시 30분, 수·금·토요일 오후 2시, 7시 30분, 일요일 오후 4시(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서울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중학생 이상 관람가)
문의	02-2280-4115~6 www.ntok.go.kr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 원작의 〈세 자매〉가 2009년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국내 참가작이자 명동예술극장 초청작품으로 9월 4일부터 1주일간 관객을 찾는다. 〈세 자매〉는 1967년 고(故) 이해랑 선생의 연출로 당시 국립극장(현 명동예술극장)에서 국립극단의 제46회 정기공연으로 한국에서 초연된 작품이다.

〈세 자매〉는 일상의 좌절과 희망 사이를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객관적이고 관조적으로 그려낸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지루하고 어리석은지를…'이라는 화두를 던진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많은 것들을 잃고 난 뒤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종막인 제4막의 마지막 장면에서 극도의 상실감에 빠진 세 자매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왜 가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아가야 한다"고 차례로 외친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삶의 의지를 보이는 세 자매의 모습은 작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이자 이 작품의 매력으로 꼽힌다.

올해 국립극단에 부임한 최치림 예술감독의 실질적인 첫 기획 작품인 〈세 자매〉에는 관록 있는 국립극단 배우들과 신진 연출가 및 스태프들이 함께한다. 연출을 맡은 신진 연출가 오경택은 고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다. 여기에 다양한 색깔을 입히는 김태근의 음악과 김봉수의 안무가 어우러져 역동적이면서도 세련된 무대가 펼쳐진다.

또한 1967년 초연 당시 나타샤 역으로 열연했던 국립극단의 원로배우 백성희는 이번 공연에서 세 자매를 키운 유모 안피샤 역을 맡았다.

올해로 데뷔 66년째를 맞은 백 씨는 "그저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 살다 보니 세월 가는 줄 몰랐다"며 "안피샤는 비록 간단한 역할이지만 어린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연기의 진수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G

글 · 김지영 기자

어쿠스틱카페 내한 공연

일시	9월 6일(일) 오후 8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문의	02-338-3513 www.sac.or.kr



지난 3월 호암아트홀에서 첫 내한 공연을 전석 매진으로 이끈 일본 뉴에이지 그룹 '어쿠스틱카페'가 다시 한국에서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에서는 새 앨범에 수록된 신곡과 함께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라스트 카니발(Last Carnival)' '고대의 태양(Ancient Sun)'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어쿠스틱카페의 대표곡들이 연주된다. 어쿠스틱카페의 열렬한 팬을 자칭하는 피아니스트 이진욱도 특별출연한다.

복합문화공연 '진달래 꿈 봄잔치'

일시	9월 5일(토)~8일(화) 화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4시, 8시, 일요일 3시, 7시 30분(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R석 4만원, S석 2만5천원
문의	070-8282-5309 www.ntok.go.kr



전통음악에 바탕을 두고 창작과 재구성을 통해 동시대의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복합문화잔치. 관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문화공연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음악, 무용, 영상이 어우러지는 이 공연은 음악퍼포먼스팀인 'wHOOL(훌)'을 중심으로 '일월의 정기' '블루스 훌(Blues wHOOL)' '수제천' 등의 곡을 선보이며 생동감 넘치는 음악을 통해 관객과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감사하는 마음

글과 그림 · 최영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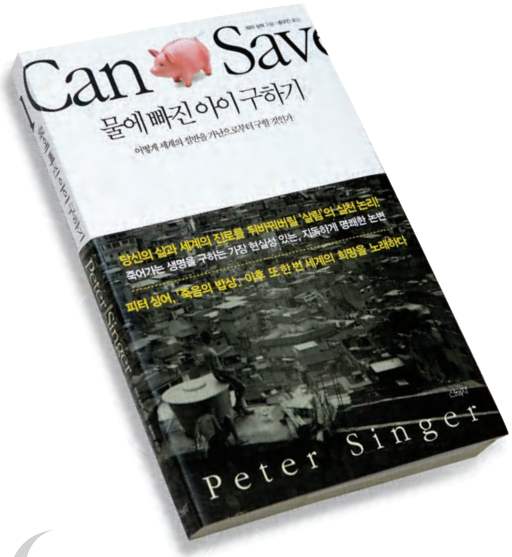


지난 15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깨달은 건 단 하나,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 안철수(인터뷰 중에서)

빈곤의 악순환… 기부의 선순환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피터 싱어 지음 · **함규진** 옮김 / **산책자** · 12,000원



출근길에 항상 지나는 얕은 연못이 있다. 아이들이 종종 놀기도 하는 곳이다. 바쁘게 이곳을 지나는데 이제 막 걸음마를 뗄 정도의 어린아이가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 주위엔 아무도 없는 위급한 상황이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고 위험하지도 않다. 다만 며칠 전 새로 산 신발이 더러워지고 양복도 다 젖을 것이다. 아이를 구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면 회사에는 틀림없이 지각할 것이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호주의 실천윤리학자 피터 싱어가 쓴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지난해 출간된 〈죽음의 밥상〉에서 "동물의 목숨을 빼앗고 그 죽은 몸뚱이를 먹을 권리가 인간에게 있느냐"고 역설했던 저자는 이번에는 "왜 내가 번 돈으로 남의 아이를 구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답한다. 그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기부'에 관해 말하면서 사람들의 무관심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앞서 언급한 상황에 빠질 때 "그냥 가겠다"고 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매일 각종 매스미디어에 보도되는, 가난으로 삶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부나 봉사활동 등으로 도와주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자료를 보면 매년 거의 1천만명에 달하는 5세 이하 어린이가 빈곤 때문에 죽는다. 또 세계은행(IBRD)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활한다. 이들은 적당한 음식, 물, 주거, 의복 등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 충족이 어려운 절대빈곤 상태로 살아간다.

기부는 선택 아니라 의무… 소득 5% 기부해야

반면 미국에선 매년 1천억 달러어치의 음식이 버려진다. 미국인은 주당 40시간을 일해 겨우 2시간의 노동만으로 1주일분의 먹을거리를 구하고 대부분의 돈은 소비재, 오락, 휴양 등에 쓴다. 세계 인구의 6분의 1은 이처럼 안락한 삶을 누리며 그리 필요하지 않은 것에 돈을 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신이 번 돈으로 차를 사고, 집도 사고, 풍요롭게 사는 것인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데는 큰돈이 필요치 않다. 무심하게 행하는 쓸데없는 소비만 줄이면 충분히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수돗물을 마셔도 되는데 굳이 사서 마시는 생수를 비롯해 외식, 옷, 집치레 등 꼭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줄이면 밥을 못 먹어서, 혹은 약을 못 먹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수만명을 살릴 수 있다.

> 기부문화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 하지만 여전히 기부는 '하면 좋다'는
> 권장사항이지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 호주의 실천윤리학자 피터 싱어는
>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 인간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말한다.

사람은 자기가 번 돈을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당위성'까지 확보하지는 못한다. 사치를 할 권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당연히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 할 윤리적 행동을 외면한다면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저자는 '소득의 5퍼센트 기부'를 주장한다. 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행복감을 느끼는 적정선이라고 말한다. 현재의 상황이 최악일지라도 절대빈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부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기부를 해야 하는 이유로 거액 기부자로 유명한 빌 게이츠의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게이츠는 2007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만난 미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이스털리가 "아프리카에 쏟은 원조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하자 짤막하게 답했다.

"저는 이를테면 한 아이가 살아났다고 할 때 그것이 국민총생산(GNP) 증가를 뜻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은 생명 그 자체로 값지지요." G

글 · 김민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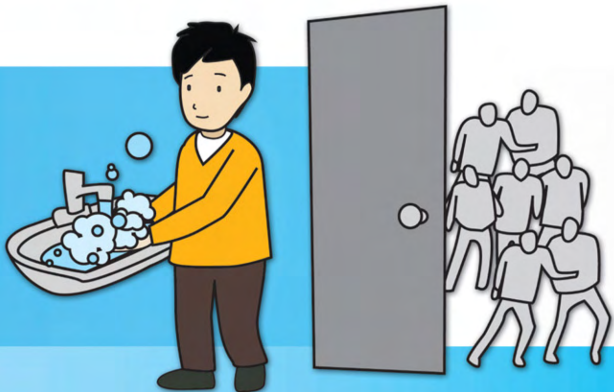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www.forest.go.kr
숲을 가꾸었습니다
희망이 자랐습니다
숲을 가꾸었습니다.
우리 숲이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숲을 가꾸었습니다.
재기를 꿈꾸는 사람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숲을 가꾸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었습니다.
숲을 가꾸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숲을 가꾸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자랐습니다.
숲을 가꾸어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일
산림청의 녹색일자리사업이 함께합니다.
■ 녹색일자리 사업
숲가꾸기, 산림재해예방, 훼손산림복원,
산림바이오매스활용 등 13개 분야 산림사업으로
2009년 상반기 현재 6만 7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www.cdc.go.kr

함께 지켜주세요

우리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행동요령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외출 후에도, 평소에도 손 씻기를 습관화해주세요.



에티켓도 잘 지키고!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면,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는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사람 많은 곳은 조심조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사람이 많은 장소는 되도록 피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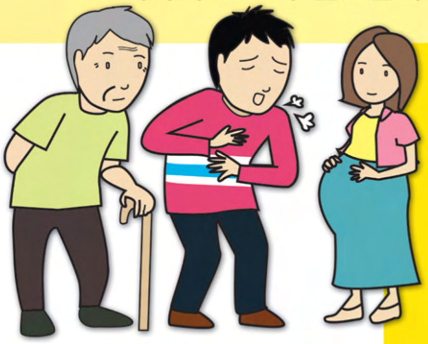
걱정없이 회복을!

신종인플루엔자는 가벼운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증의 건강한 사람은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편히 쉬고, 많은 양의 수분을!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진료를!

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 비만, 임산부나 노인 분들은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